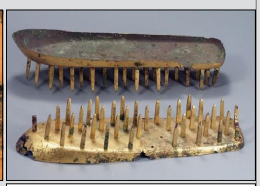
http://doi.org/10.20292/jcich.2026.51.31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에 대한 新고찰

A New Study of Iron-Spiked Footwear of the Three Kingdoms-Unified Silla Period

신 광 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하 나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후 연구생

Ⅰ. 머리말

Ⅱ. 연구사

Ⅲ.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 개요

Ⅳ. 철제못신의 의의와 성격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본고는 삼국~통일신라시대 동아시아에서 확인되는 탈착식 철제못신의 실물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합하고, 관련 문헌 · 비교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기능과 용도, 그리고 한국 고대사에서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철제못신은 출토 사례가 적고 금동못신에 비해 관심이 낮아, 발굴보고서에 '불명철기', '미상철기'로 처리되거나 '등자', '편자' 등으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誤認 · 누락 사례를 재검토하여 총 72점(중국 27점, 한국 43점, 일본 2점)의 철제못신을 새롭게 정리하고, 형태 · 못 길이 · 결착 방식 등의 속성에 근거해 형식 분류를 시도하였다.

검토 결과, 철제못신은 권역별로 출토 맥락과 사회적 인식에 차이는 있으나, 실용기이면서 동시에 부장품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구려 · 백제권에서는 실용적 성격이 두드러진 반면, 부여 · 신라권에서는 분묘 출토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부장품으로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철제못신의 변천과 확산 양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주제어 : 탈착식 철제못신, 스파이크,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장품, 금동못신

Ⅰ. 머리말

발바닥 전면에 못이 박힌 '금동못신'은 일찍부터 高句麗의 대표적인 기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기능과 용도를 두고 '실용기'와 '의례용기'라는 상반된 해석이 병존하고 있다. 고분벽화를 보면 실용기로 볼 수 있지만, 금동제 실물의 강도와 구조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의례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고구려 사회에서 못신이 단일한 용도로만 쓰이지는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 1. 〈삼실총〉 수문장, 2. 〈통구 12호분〉의 적장 참수도,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못신(덕수5193-1)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실용기'로서의 못신, 그중에서도 '脫着式 못신'이다. 고분벽화에서 못신은 軍中에서 사용하던 武裝의 일부로 표현되며, 전투 시 身體를 보호하고 적을 제압하는 무기로 묘사된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못신은 아직 철제 실물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 발바닥의 일부만 받치는 형태의 철제못신만 적지 않게 출토되어 주목된다(그림 1).

탈착식 못신은 신발 바닥에 징을 박은 油鞋와 기능 면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개념은 전혀 다르다. 유혜는 말 그대로 가죽을 기름에 절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든 신발

로, 오뚝 징을 바닥에 박아 넣어 비가 오는 날이나 진땅에서 신는 용도로만 쓰였다.[1] 이와 달리 탈착식 못신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일반 신발에 덧대는 휴대용 부속구 형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못신은 전부 탈착식이며, 바닥 전면을 감싼 형태(이하 全面형)와 일부만 받치는 형태(이하 局部형)로 나뉜다.[2] 전면형의 경우, 고분벽화를 보면 실용기(특히 武具)였던 것 같은데, 현재 실물 자료는 의례용으로 쓰였을 법한 청동 · 금동제만 확인되고 있다. 그와 달리 국부형은 철제만 확인되며, 출토 사례를 보면 실용기와 의례용기 모두 확인된다. 그동안 국부형은 형태상 '편자[蹄鐵]'[3] 또는 답부 일부만 잔존한 '등자(鐙子)'[4]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관련 자료가 증가하면서 이를 주목한 새로운 시각들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확인되는 탈착식 철제못신 사례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수합한 뒤, 문헌사료 및 비교 자료를 종합하여 그 기능과 용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철제못신이 한국 고대사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

---

1) 유혜는 징을 박았다 하여 '징신', 진땅에서 신어도 진흙이 묻지 않는다고 하여 '진신' · '泥鞋', 놋으로 만든 징을 박아서 '놋신' · '놋갓신' · '鍮鞋' 등으로 불린다. 나막신[木屐] 또는 반장화 형태의 套(兒)도 비슷한 용도의 신발이다. 단, 이는 모두 특정 용도에 한정한 신발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철제못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26.3.28. 검색).

2) 본고에서 다루는 철제못신의 속성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Ⅳ장에서 다루겠다.

형태(대분류)			못 길이(중분류)		결착 방식(소분류)	
Ⅰ	평면: 환형/삼각형/방형		A	1.9㎝ 이하	a	被覆형: 천/끈으로 발 전체를 감싸듯이 고정
Ⅱ	단면: 'ㄴ'자형	하단: 刺形	B	2.0~3.9㎝	b	捲環형: 신부 끝단을 구부려 고리를 형성
Ⅲ		하단: 못	C	4.0㎝ 이상	c	捲連環형: b형 끝단에 별도의 고리를 연결
					d	穿孔형: 신부 끝단에 1~2개의 구멍을 뚫음

3) 편자는 보통 타원형에 발굽 뒷부분이 열려 있는 형태('Ω'형)로 말과 노새, 당나귀, 소 등 모든 有蹄類에 부착된다. 특히, 말발굽에 비해 노새 발굽은 앞뒤가 조금 더 길고 좌우가 바깥쪽으로 퍼진 형태를 띠고 있어 장타원형에 가깝다(A.F.Souza 외 2016). 평면 형태상 일반 말편자와 다를뿐이지만, 못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못신과 노새용 편자를 오해할 여지는 충분하다.

4) 강정무(2010: 107~108)가 지적했듯이 등자는 발을 지지해 주어야 하므로 踏部鋲이 위로 솟아 있지만, 못신은 반대로 바닥 면과의 접지력을 위해 답부병이 아래로 향해야 한다. 발과 접촉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답부병의 위치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사

1. 동아시아의 연구 경향

중국에서 이를 처음 주목한 이는 張雪岩이다. 孫仁杰과 함께 조사한 채석장유적[勝利遺址](동북아역사재단 2021: 338~341) 조사 내용을 학계에 발표한 그는 채석장에서 얼음과 눈을 이용해 대형 석재를 옮길 때와 겨울 전투 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鐵釘履'를 착용했다고 보았다. 더불어, 환도산성과 만보정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못신도 같이 언급하였다(張雪岩 1992: 71~72).

이듬해 耿鐵華(1993: 108)는 철정리를 방어무기로 분류하고, 1976년 환도산성 출토품과 만보정 151호묘 출토품을 소개하였다. 2001~2003년에는 환도산성 궁전지에서 총 5점의 철정리가 수습 보고되었고(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 編著 2004), 그중 1점에 대한 자연과학분석도 이루어졌다(张玉春 2009).

이후 못신은 산성 · 고분벽화와 함께 고구려를 대표하는 문화 요소로 인지되기 시작했다(徐秉琨 · 孙守道 1996: 151~154). 王鹏勇(2000)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출토된 고구려 钉履를 鐵製와 铜质鎏金製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陈爽(2010)은 금동못신과 철제못신의 출토지 편중이 심한 것을 근거로 후자를 산성이나 산악지형에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신었을 것으로 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兵器의 하나로 인식해 實戰用으로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郑春颖(2013)은 환도산성 조사단의 분류 기준에 따라 A형('U'자형)과 B형(말굽형), C형(방형)으로 못신을 분류하고 A형은 등반용, B형은 땅이나 얼음 위의 미끄럼 방지용, C형은 A형과 짝을 이루는 기물로 이해하였으며, 귀족이나 군사지휘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와 평민도 썼을 것으로 보았다.[5)]

전면형 금동못신은 현대 축구화 및 패션(평크스타일)과 연결해 이해하기도 했으며(田小弘 · 吴春艳 2014), 郑春颖은 후속 연구(2015)에서 최초로 고구려 복식 전반을 다루면서 고분벽화 속 996명의 복식을 분석하고, 120개 유적에서 출토된 400여 점의 유물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지나치게 외래 영향을 강조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Jung Wanjin 2021), 신발과 관련해 이전 견해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

5) 그는 앞서 사용되었던 '履' 대신에 '鞋'를 사용하여 연구자별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万欣 등(2020)은 라마동 ⅠM17호묘 내 갑주 퇴적양상을 고찰하면서 철제못신[屣釘][6] 2점의 형태와 출토 지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장기병용 갑주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1998년도 발굴 결과를 참고한 것인데, 당시 고구려권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王瑞 · 韩容洙(2021)는 겹창 신발[舃]과 홑창 신발[履]을 구분하며, 중국에서 오래 서 있거나, 진흙 · 습기를 피하려고 나무를 덧댄 신발이 만들어졌음을 살폈다. 그 외 나무 이가 2개 달린 목제 신발[(木)屐]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일찍부터 서로 다른 2개의 재료로 만든 겹창 신발을 인지했음을 지적한 셈이다. 단, 본고에서 다루는 철제못신을 特記하지는 않았다.

이상 중국 내 인식을 보면, 일찍부터 고분벽화와 발굴품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구려의 특징적인 복식문화로 인식하고, 집안 지역의 지형 및 날씨를 토대로 등산용, 빙상용, 전투용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이를 현대 복식문화 및 패션 디자인과도 연계해 이해하고, 종래에는 중국 복식문화 속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주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7]

그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인지가 다소 늦었다. 2004년 환도산성 발굴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金性泰(2004; 2005)가 '철정리'를 국내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으나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8] 이후 황오동 고분군 출토품을 정리하던 강정무(2009: 53~55)가 'ㄩ'자형의 불명철기 5점을 처음으로 '탈착식 철제못신'이라고 명명하고 소개하였다. 이후 보다 많은 사례를 정리하였는데(姜廷武 2010), 이것이 현재까지 철제못신을 다룬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9]

이와 달리 금동못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아 최근까지도 신라 · 백제 금속공예 및 매장 문화의 일부로 다룬 연구(전정은 2023; 김재열 2024)[10]가 나온 바 있다. 한편, 박수동(2012; 2015)은 이를 고구려의 특징적인 신발로 규정하였다. 금동못

---

6) 그동안 통용되었던 '履'釘 대신 '屣'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주목된다.

7) 최근 중국 측 인식을 보면 금동못신은 王公貴族, 철제못신은 장수나 병사가 사용했다고 해석해 재료에 따른 신분 · 계층 차이를 두기도 한다(中国文化报 '25.11.13. 기사 〈铜鎏金钉鞋: 古人的 "防滑神器"〉 참조).

8) 김성태의 후속 연구(2010)가 있지만,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9) 강정무(2024: 193~200)는 최근 발굴보고서에 선행 연구와 동일한 내용의 고찰을 수록하였다.

10) 금동신발은 주로 특별전시 도록이나 자료집의 형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2019; 국립대구박물관 2024).

신은 귀족 군인의 착장품이 부장품화한 것으로 근접 전투 시 무기로 쓰였다고 했는데, 못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고구려 금동못신을 통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등에 더 주목하였다.

이후 오랫동안 학계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철제못신[11]은 최근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한성475: 두 왕의 승부수〉를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 박물관 측은 이를 신발에 장착하는 부속구인 크램폰(Crampons)처럼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해석하고(국립공주박물관 2025: 125) 관련 실물 자료를 처음 전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즈마 우시오(東潮 1997)가 한국 출토품을 중심으로 철제못신을 다룬 바 있으며,[12] 그후 일본에서 철제못신 2점이 출토되었으나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다. 高木 18호분[13]에서 출토된 '스파이크상 철제품(スパイク状鉄製品)' 1쌍이 그것인데, 당시에는 용도 불명으로 정리되었다(三木市教育委員会 2000: 66).

고바야시 세이지는 이를 일본 각지에서 출토된 20여 점의 '스모선수 형상 하니와[力士埴輪]'의 발에 달린 부착구와 연관시켜 이해하였다. 스모선수가 격투 시 착용하는 '스파이크상 타격구'로 해석한 셈인데, 발 위아래에 같이 부착했을 가능성 제시, 고구려 벽화고분의 무기와 연결시킨 점, 격투기뿐 아니라 제사와 연관시켜 이해한 점 등이 특징이다(小林青樹 2016; 2017: 264~265; 2019: 441~443).

이처럼 한중일에서 꾸준히 유물이 출토되면서 점차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단, 출토 수량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주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며, 향후 용어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유럽의 연구 경향

유럽에서의 철제못신 연구는 초기철기시대인 할슈타트 C · D기(B.C.8~5세기) 무덤 조사와 궤를 같이 한다. Eduard von Sacken(1868)은 할슈타트고분군 제92호묘를 발굴하면서 Steigeisen을 처음 확인하였고, Joseph Déchelette(1914: 1393)는 이를

11) 그사이 고구려 철기에 대한 자료집이 발간되었지만, 선행 연구 검토 미비, 원보고서 인용 시 오류, 유물 내용 누락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국내 학계는 물론 국립기관에서의 당시 인식 수준을 잘 보여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90~91).

12) 단, 그가 제시한 몽촌토성 2호 주거지 · 옥전 M3호분 · 강화도 문수산성 출토품은 모두 편자 또는 불명철기로서 철제못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강정무 2010: 99~100).

13) 高木 18호분은 당초 TA-II구 1호분으로 분류됐으나 보고서 작업 시 18호분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본고에서는 최종 정리된 18호분으로 명명하였다.

'빙상용 크램폰(crampon à glace)'으로 명명하였다(그림 2).[14] 이후 켈트인 광부 또는 로마시대 갈리아인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박차(spur)나 원시 등자와 같은 마구류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를 두고 연구 초반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다(J. Monroe Thorington 1934: 266~268).



[그림 2] 할슈타트 무덤 출토 철제못신 삽화

Петров, М. И.(2006)는 노브고로드에서 출토된 세 갈래형(Triangular studs) 철제못신을 연구해 삼각형은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지만, 세 갈래형은 12~14세기의 더 넓은 연대 폭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는 이를 대개 빙판용 보행 도구로 이해했지만, 논자는 오히려 여름에 지면과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어 용도를 폭넓게 볼 것을 제안하였다.

10~13세기경으로 편년되는 볼가 불가르 지역의 빌야르성(Булат Хамидуллин редкол. 2006: 1016)과 13~14세기 흐멜레프카 I 유적에서도 이와 같은 철제못신이 확인되었다(Недашковский, Л.Ф. · Шигапов, М.Б. 2018).

한편, VLASATÝ, Tomáš.(2017)는 바이킹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스웨덴 · 노르웨이 출토품을 총 4개의 유형[15]으로 나누고 실험고고학을 통해 그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못신은 풀숲을 걷거나 등산 시에는 유용했지만, 전투 시에는 불편했을 것이며, 여름보다는 겨울에 주로 쓰였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Ștefan Vasilache(2019)에 의하면, 할슈타트문화부터 확인되는 유럽의 청동제 · 철제못신은 주로 금속생산과 연관된 산악지역에서 출토된다고 한다. 험한 지면에서 착용자의 안전성과 접지력을 높여주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목재 벌채와 운반용으로도 쓰였지만, 귀금속 장인 또는 전사의 무덤에 부장품으로도 들어가 있다는 지적은

14) 당초 Joseph Déchelette(1914: 1395)는 이를 청동제로 소개했지만, 이후 Mahr, A(1935: 15)가 철제에 4개의 돌기가 있다고 바로잡았다. 실제 [그림 2] 왼쪽의 철제못신 답부면 아래에 3개의 돌기가 묘사되어 있지만, 위치상 4개의 돌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Mahr가 몇가지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음 소개한 Sacken의 잘못된 연구가 이후 계속 답습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한편, Mahr, A(1935: 21)는 이를 기마용 초기 박차와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15) Arwidsson, Greta(1986: 111)는 비르카유적 출토 못신을 총 5개 형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철제못신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노르웨이 중부 Lendbreen의 산악 통로에서는 1,000년 전후 바이킹 시대에 이곳이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는데(Lars Pilø 외 2020), 자연환경과 생업 경제, 그리고 그에 걸맞은 기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16]

라트비아의 체시스성 출토 철제못신을 연구한 Plankājs, Eduards(2022)는 이를 대체로 11~16세기로 편년하면서, 겨울철 어부나 약탈자, 사냥꾼뿐만 아니라 기사단과 각 성의 시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수평으로 미끄러운 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깊은 눈이 쌓인 가파른 경사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여름에 자갈길과 잔디밭, 미끄러운 나무판자 위에서도 대체로 유용했다고 하여 비단 겨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절과 환경에서 유용했음을 논증하였다.



[그림 3] 1. Tønsberg 출토 철제못신, 2. 오슬로 중세공원 출토 철제못신

Espen Kutschera는 Tønsberg에서 출토된 철제못신 복제품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는데,[17] 이는 2022년 오슬로 중세공원에서 가죽 끈과 결합한 세 갈래형 못신과도 비교 가능하다(그림 3). 한편, 말용 못신 또한 700년 이후 중세시대 내내 삼각형, 세 갈래형, 'X'자형, 고리형 등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다.[18]

최근에 ANNE-SOFIE GRÄSLUND(2025)는 11세기 무렵, 스웨덴의 바이킹 고분군에서 출토된 말과 사람용 못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못신이 실용기이면서도 망

16)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뼈 스케이트는 기원전 2천년 기에 처음 등장하며, 북흑해 북방의 초원 지대에서 헝가리 대평원에 이르는 지역이 초기 중심지였다. 이후 2천여 년간 사라졌던 뼈 스케이트는 초기 중세와 바이킹 시대에 다시 爆增한다(Hans Christian Küchelmann · Petar Zidarov 2003). 이는 도구가 지형이나 기후와도 관련이 있지만, 특정 생태환경에 적응한 집단의 선택적 수용과도 관련이 깊음을 알려준다.

17) Forskning.no 2025.1.21. 기사 「Også vikingene brukte brodder for ikke å gå på trynet på glatta」 검색('26.3.30.)

18) sciencenorway.no 2022.6.8. 기사 「Medieval excavation greatest hits: 800 years ago a fashion queen strolled the streets of Oslo in this elegant shoe」 검색('26.3.30.)

자가 저승[발할라]으로 가는 도보 여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helskor)로 기능했음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바이킹 사회에서 못신이 실용기와 의례용기, 두 가지 용도로 쓰였음을 알려준다.

한편, 레닌그라드주의 여러 박물관[19]에는 8~15세기에 해당하는 철제못신(ледох одныйшип)이 다수 전시 중인데, 단면 'ㄴ'자형에 아래에는 징이 박힌 형태의 못신과 세 갈래로 갈라진 끝단에 징이 박힌 형태 등이 다양하게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알타이 지역의 텔레츠코예 호수 주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복수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발견된 빙판용 부속구(ледос тупы)는 단조 철판에 6개의 발톱이 달린 형태인데(아래 4개는 얼음 접지용, 위 2개는 가죽 끈 고정용) 배를 물가까지 끌어 올리거나 썰매로 물건을 나르는 등 얼음 위에서 작업할 때 쓰인다고 한다. 정확한 편년은 어렵지만, 최근까지도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기물이 쓰였음을 알려준다.[20]

이상 북유럽부터 남러시아와 알타이 지역 등에서 빙상용 철제못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실물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부장품보다는 실용기로서의 의미에 穿鑿하여, 기능과 성격, 편년, 제작기법, 실험고고학까지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시공간을 떠나 기능과 형태 등이 한정된 기물인 만큼 유럽의 연구 성과는 향후 동아시아의 철제못신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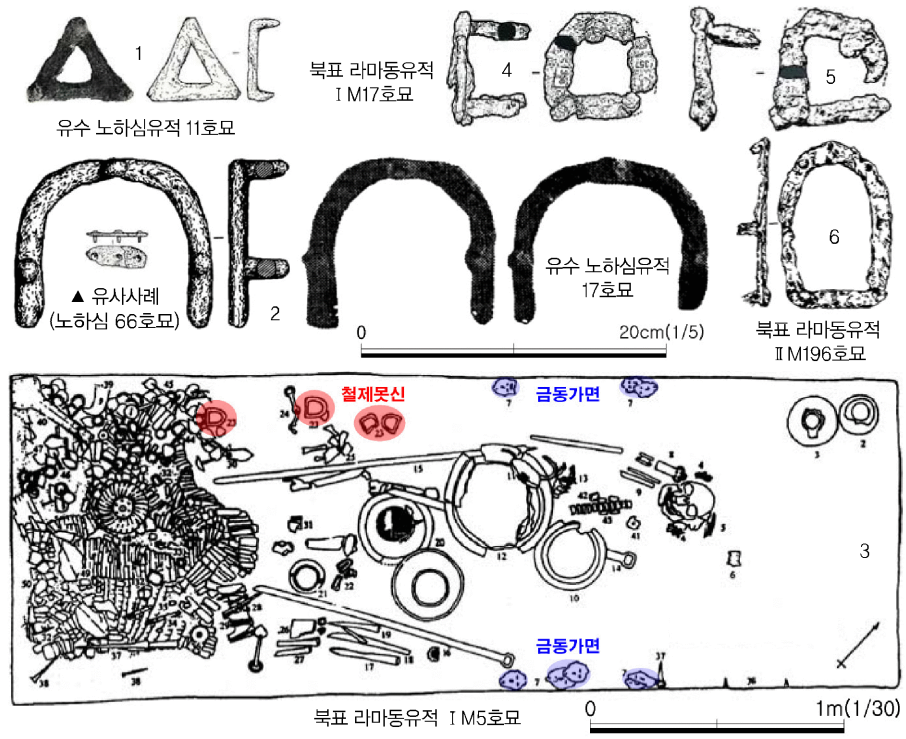
Ⅲ.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 개요

1. 중국 동북지역 출토 자료

1) 부여·삼연문화권(그림 4)

楡樹 老河深유적 출토품은 모두 Ⅰ형으로 11호묘에서는 평면 '△'형 1점, 17호묘에서는 평면 '∩'형이 3점 수습되었다.[21] 4점 모두 상부와 좌우에 각 1개씩, 총 3개의

19) 레닌그라드주 박물관(Музеи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홈페이지 검색('26.3.31.)
20) 알타이 국립자연생태계 보호구역(https://altzapoved.ru/arkheologiya) 검색('26.3.31.)
21) 강정무(2010: 114~116)는 환형 못신만 언급했으나, 三角形器 또한 못신으로 판단된다. 형태 차이는 부착



[그림 4] 중국 소재 못신 일괄: 선비/부여

못이 나와 있다. 보고자는 이를 '半环形器'와 '三角形器'라고 기록하고, 기본적인 제원 정도만 남겼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85).[22]

北票 喇嘛洞古墳群 Ⅰ지구 M5호묘에서 출토된 '鐵履釘'은 피장자의 우측 발치에서 4점이 수습되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 14). 上圓下方形(3점)과 方形(1점)으로, 유구 도면으로 추산한 못신의 크기는 7~9㎝ 내외이다. 서로 다른 못신 2개가 쌍을 이루어 앞뒤에 부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M17호묘에서는 3점의 '履釘'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2점에 대한 제원이 보고되었다. 상원하방형[23]에 1점, 또는 3점

부위 또는 사용 주체(선비/부여)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22) 66호묘에서 半月形器 1점이 출토되었다(文物出版社 1987: 85). 형태상으로는 못신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단, 크기는 작은데(길이 4.3㎝) 못이 많이 박혀 있으며, 두께도 너무 얇은데다가(0.2㎝) 출토 위치 또한 上肢骨 부근인 점 등이 고민이 된다. 하지만, 경주 쪽샘 41호 부곽 출토품처럼 典型에서 벗어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 유사 사례로만 언급해 두겠다.

23) 보고자는 이를 납작한 말각방형의 고리〔扁四棱体环〕로 서술했지만(万欣 외 2020: 350), 도면을 보면 상단과 하단의 굴곡이 다른 상원하방형임을 알 수 있다.

의 못이 부착된 단조품이다. 3점 중 2점이 甲片 사이에서 발견된 탓에,[24] 보고자는 중장기병[甲騎具裝]과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중장기병 관련 부장품이 출토되지 않은 무덤에서도 해당 기물이 출토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용도 해석에 신중을 기하였다(万欣 외 2020: 350 · 379).

한편, Ⅱ지구 M196호묘에서도 '铁屣钉' 4점이 출토되었다. 형태는 모두 같았으며, 한쪽 변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혀 모양[舌形]으로 묘사하고 있다. 길이는 10.1㎝,[25] 너비는 7.5㎝로 길이 1.2~1.6㎝의 못 5개가 붙어 있다(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212~213; 226~227).[26]

2) 고구려권(그림 5)

集安 採石場유적에서 출토된 상원하방형 못신은 '鐵釘履'로 명명됐으며, 겨울철 채석장에서 채석된 석재 운반 시 쓰인 것으로 해석됐다(張雪岩 1992: 71).

集安 萬寶汀 151호에서는 앞 · 뒤쪽 '철정리' 2쌍이 출토되었다. 앞쪽 못신은 상원하방형으로 좌우 측면에 2개씩, 상부 가운데에 1개의 못이 나와 있고, 뒤쪽 못신 역시 상원하방형으로 네 모서리에 등간격으로 4개의 못이 나와 있다(耿鐵華 1993: 108). 2점 1쌍의 도면만 제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1쌍의 규격도 이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10: 179).[27]

마지막으로 集安 丸都山城에서 다수의 '철정리'가 출토되었다. 耿鐵華(1993)가 소개한 못신은 라마동유적과 마찬가지로 평면 상원하방형과 방형이 1쌍을 이루고 있다. 전자는 상부와 측면에 등간격으로 5개의 못이 나와 있고, 후자는 네 모서리에 각 1개씩, 그리고 한쪽 면의 가운데에 못이 1개 더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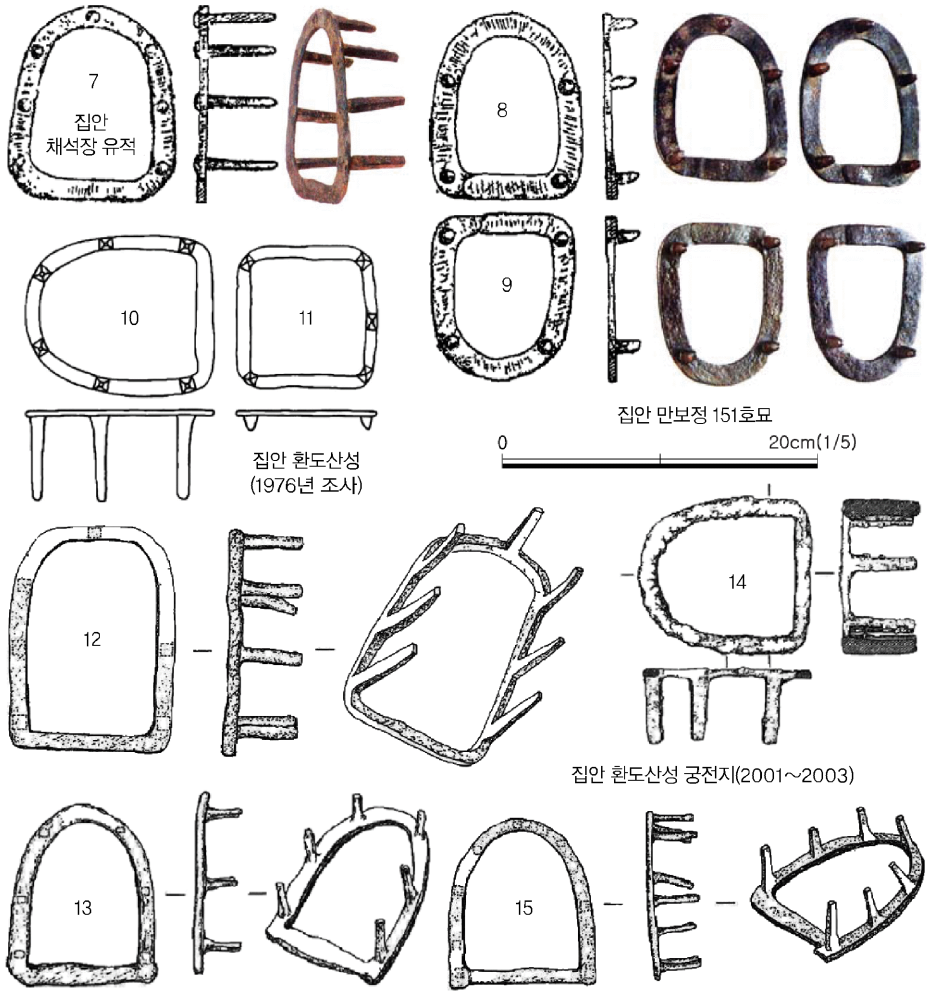
또한, 2001~2003년 환도산성 조사 결과, 철제못신 5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吉

24) 보고서에는 3점 중 2점(Z358, a370)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제시된 도면을 보면 Z357과 Z358 2점이 하나로 복원되어 Z358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단, 보고서 내에 일괄적으로 3점이 출토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ⅠM17호묘 출토 수량은 일단 3점으로 파악하도록 하겠다.

25) 보고자는 못신의 길이를 10.1㎝라고 했지만, 본문에 기재된 너비 및 못의 길이, 도면의 축적 등을 고려해 다시 계산하면 길이는 11.1㎝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삼겠다(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227).

26) 유물 설명에는 6점으로 되어 있지만(遼宁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240), 도면을 보면 ⅡM196호묘 피장자의 발치에 4점이 그려져 있어 일단 4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7) 해당 자료에는 출토지가 山城下 151호묘로 적혀 있지만, 앞선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만보정 151호묘의 오기로 보인다(張雪岩 1992; 耿鐵華 1993).



[그림 5] 중국 소재 못신 일괄: 고구려

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 編著 2004: 93). 조사단은 형태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었는데, A형(3점)은 닫힌 'U'자형에 발판[踏面] · 못의 단면이 모두 방형이며, B형(2점)은 말굽형이라 하였다. 보고서에는 A형 2점, B형 2점에 대한 제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형태는 대체로 상원하방형이며, 못의 개수는 6~7개이다. 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주조 성형 후 재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28)]

28) 张玉春(2009: 37)은 환도산성 출토품을 '주조 성형 후 풀림 처리한 탈탄강 제품(주철탈탄강)'으로 보았다. 기원전 6세기에 중국에서 확인되는 이 기술은 燕 문화의 확산과 함께 遼西의 鮮卑를 통해 동북지역과 한반도, 일본 등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陈建立 2017).

[표 1] 중국 동북지역 출토 철제못신 제원(길이:㎝)

연번	유적(시기)	보고용 명칭	제원[29]						결착 방식	유구	비고
			몸체				못				
			형태	길이	너비	두께	길이	개수			
1	노하심11호/17호[30] (기원전후)	三角形器 (1점)	Ⅰ형	5.5	5.9	1.9	1.4(A)	3	a	분묘	선비?
2		半环形器 (3점)	Ⅰ형	11.2	13.0	1.7	2.7(B)	3	a		부여
3	라마동 Ⅰ M5호 (4세기 전~중)	鐵履釘 (4점)	Ⅰ형	8~9	7~8	?	?	3/5[31]	a	분묘	부여
4	라마동 Ⅰ M17호 (4세기 전~중)	屣釘 (3점)	Ⅰ형	7.1	6.9	0.8	3.6(B)	3	a	분묘	
5			Ⅰ형	6.6	5.6	0.8	3.5(B)	3	a		
6	라마동 Ⅱ M196호 (4세기 중엽)	履釘 (4점)	Ⅰ형	10.1	7.5	0.6	1.2(A)	5	a	분묘	
7	채석장유적 (4~5세기)	鐵釘履 (1점)	Ⅰ형	12.5	11.0	0.7	4.7(C)	7	a	생산	채석용 /고구려
8	만보정151호 (4~6세기)	鐵釘履 (4점/2쌍)	Ⅰ형	12.0	9.8	0.6	1.6(A)	5	a	분묘	앞뒤부착 /고구려
9			Ⅰ형	10.9	9.3	0.6	1.6(A)	4	a		
10	환도산성 (4~6세기)	鐵釘履 (7점)[32]	Ⅰ형	12.0	10.2	0.3	5.3(C)	6	a	관방	1976년 수습
11			Ⅰ형	8.8	8.8	0.3	0.8(A)	5	a		
12			Ⅰ형	14.4	10.4	1.0	4.0(C)	7	a		2001~ 2003년 등산용[33] /고구려
13			Ⅰ형	12.0	10.0	0.8	2.4(B)	6	a		
14			Ⅰ형	11.2	10.0	0.5	4.2(C)	6	a		
15			Ⅰ형	11.2	9.6	0.5	2.9(B)	7	a		

이상 중국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은 총 27점으로,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삼각형이 1점, 한쪽이 열린 환형이 3점, 말각방형에 가까운 상원하방형 3점, 상원하방형 18점 및, 방형 2점이다. 또한, 채석장유적 출토품만 鋲頭가 튀어나왔을 뿐 나머지는 전부 주물 후 재가공 시 踏面을 편평하게 마감하였다(표 1).

29) 기본적으로 제원은 개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되 수치가 맞지 않거나 없는 경우, 가장 확실한 평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규격을 계측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30) 보고서 내 도면에 제시된 1점에 대해서만 제원을 정리하였다.

31) Ⅰ M5호묘 출토품의 못 개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대체로 3개, 5개가 모두 확인된다고 한다(万欣 외 2020: 379). 유구 도면을 참고했을 때, 3개는 Ⅰ M17호묘 출토품, 5개는 Ⅱ M196호묘 출토품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겠다.

32) A형 3점 중 2점에 대한 내용(도면, 사진, 제원)만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33) 张玉春(2009: 37)은 해당 기물에 대해 집안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철기로서 등산용이며, 이를 신발의 뒷부분에 부착했다고 해석했다. 크기 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큰데, 부착 부위에 대해서는 못의 길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철제못신이 나온 유수 노하심 중층은 서한 말~동한 초(B.C.1세기 말~A.D.1세기 초)에 해당하는데(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107~119), 중국 측에서는 중층을 모두 鮮卑 문화층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묘역의 조성 시기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한다고 했을 때(정상석 2012), 北區의 중심 묘제인 11호묘보다 남쪽에 있는 17호묘는 상대적으로 뒤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7호묘의 '쌍이호+소형관' 토기 조합을 보면 '쌍이호 단독 부장' 무덤과 달리 이질적이다. 이는 11호묘에서 출토된 삼각형 못신과 17호묘에서 출토된 환형 못신 사이에 시기 · 종족적 차이점을 담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삼각형 못신이 내륙 유라시아부터 북유럽까지 폭넓게 확인된 것을 보면, 계통상 유목 집단을 통한 동서 문화 전파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에 반해 17호묘[34]에서 출토된 환형은 아랫부분의 開閉 차이가 있지만, 뒤이어 등장할 상원하방형 또는 방형 못신과 계통상 연결 가능한 부여계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마동유적은 조사를 담당한 田立坤(2003)이 처음 부여 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입지, 무덤 배치, 두향(東向), 무덤 평면 형태, 매장 방식, 부장품 매납 위치, 유물 훼기 현상, 금동 가면과 금귀고리 등 諸 요소가 부여 문화와 연결되며, 보통 이를 전연에 의한 부여 사민 집단의 墓域으로 보고 있다(이종수 2024).[35]

그중 ⅠM5호묘는 묘역 내 대형묘 중 하나로서 170여 점에 달하는 부장품 중 금동 가면이 8점이나 매납되어 주목된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36] 또한, 라마동유적에서 확인된 목곽묘가 유수 노하심 중층묘지 목곽묘와 매우 유사하며, 내몽골 동부지역의 선비 관곽과는 다른 점(田立坤 2003: 263~267), 라마동유적 출토 인골에 대한 자연과학분석 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요서지역 초기 토착민의 후예와 일부 선비인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제2쑹화강 유역에서 온 부여인을 주체로 한 혼합집단으로 봐도 무방한 점(朱泓 외 2012) 등이 참고된다.

이 같은 중국 동북지역의 복합적인 인적 · 문화적 환경 속에서 4세기대 라마동유

34) 조사단은 중층에서 확인된 무덤 129기 중 〈중앙 매장지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로 집중된 무덤 23기〉만이 頭向이 동향이며, 나머지는 모두 서향이라고 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11~12). 유구 분포도를 보면, 17호묘가 23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렇다면 환형 못신이 선비/부여 문화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35) 선비 무덤 특유의 평면 頭廣足狹과 감실, 이차장의 흔적은 ⅠM7호묘 하나에서만 확인되고 있어(이종수 2024: 76) 이를 선비/부여계 무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36) 라마동유적 내 삼연 무덤은 420기로 부장품의 총수량은 5천여 점이다. 그중에서 ⅠM5호묘 하나에서만 다량의 부장품이 나와 해당 피장자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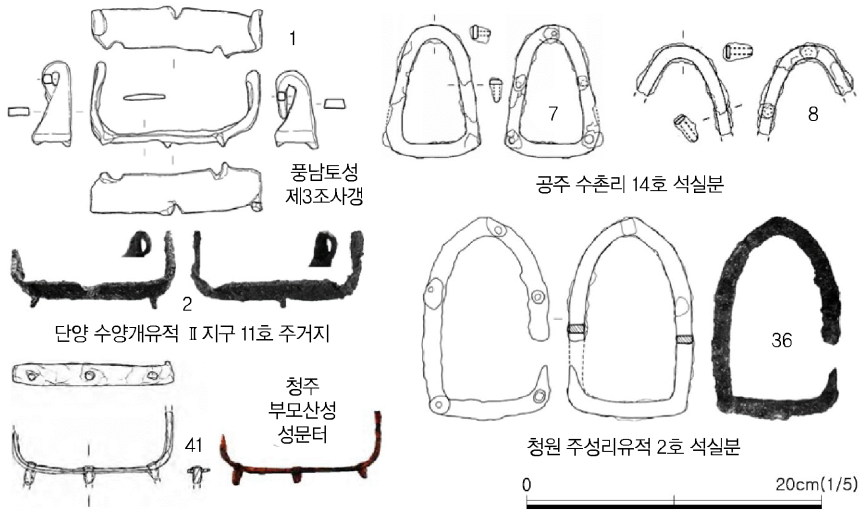
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Ⅰ형 철제못신이 확인되고 있다. 그중 Ⅱ M196호묘 출토품이 보인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철제못신과의 형태적 유사성은 향후 양자 간의 연결고리를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37]

2. 한반도 중남부 출토 자료

1) 백제권(그림 6)

수양개 Ⅱ지구 11호 주거지에서 '발걸이모양 철기'가 수습되었는데, 身部 끝단을 구부려 고리를 만든 Ⅱ형이다(이융조 · 우종윤 1995: 200; 강정무 2010: 116).

청원 주성리유적 2호 석실분 출토품은 '불명철기'로 적혀 있는데(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158), 형태상 부여 라마동 Ⅱ M196-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38] 풍납토성 제3조사갱 12층 출토품은 '격쇠형 철기'로 적혀 있으며(國立文化財硏究所 2005: 65~66), 수양개유적 출토품과 형태상 동일하다.



[그림 6] 한국 소재 못신 일괄: 백제

37) 단, 고구려 철제못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못의 길이가 긴 C형이 부여대부터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고구려에서 발전된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더불어 부여의 못 개수가 3개 또는 5개인 것과 달리 고구려에서는 5~7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형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용처나 기능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38) 보통 고구려의 상원하방형 철제못신은 장단비가 1.2 안팎이다. 그와 달리 부여의 라마동 Ⅱ M196호묘 출토품은 약 1.5로 보다 더 세장하다. 한편, 백제의 수촌리 14호 석실 출토품(1.4), 주성리 2호 석실분 출토품(1.6)을 봤을 때, 형태상 부여 · 고구려와 모두 연결될 수 있지만, 세장도만 놓고 본다면 부여와의 연관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청주 부모산성 출토품은 '미상철기'로 보고되었으며, 리벳 접합 기법이 잘 확인된다. 정확한 출토 지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성문 근처의 문화층에서 확인되었으며((財)中原文化財硏究院 2008: 206), 등산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공주 수촌리고분군(6차) 14호 석실분에서도 '미상철기' 2점이 보고되었는데, 조사단은 성시구의 부속품으로 이해했다. 평면 이등변삼각형으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 212~215) 주성리유적 출토품과 비교할만하나 형태와 크기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2) 신라·통일신라권(그림 7~8)

황오동 16호분 5곽에서 '용도불명철기' 2점이 출토되었다. 조사단은 '울두'나 '청동합' 등의 받침대로 추정하면서 경산 조영 C Ⅰ-1호분에서 출토된 3脚 異形鐵器와 비교하였다(유네스코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 財團法人東洋文庫 200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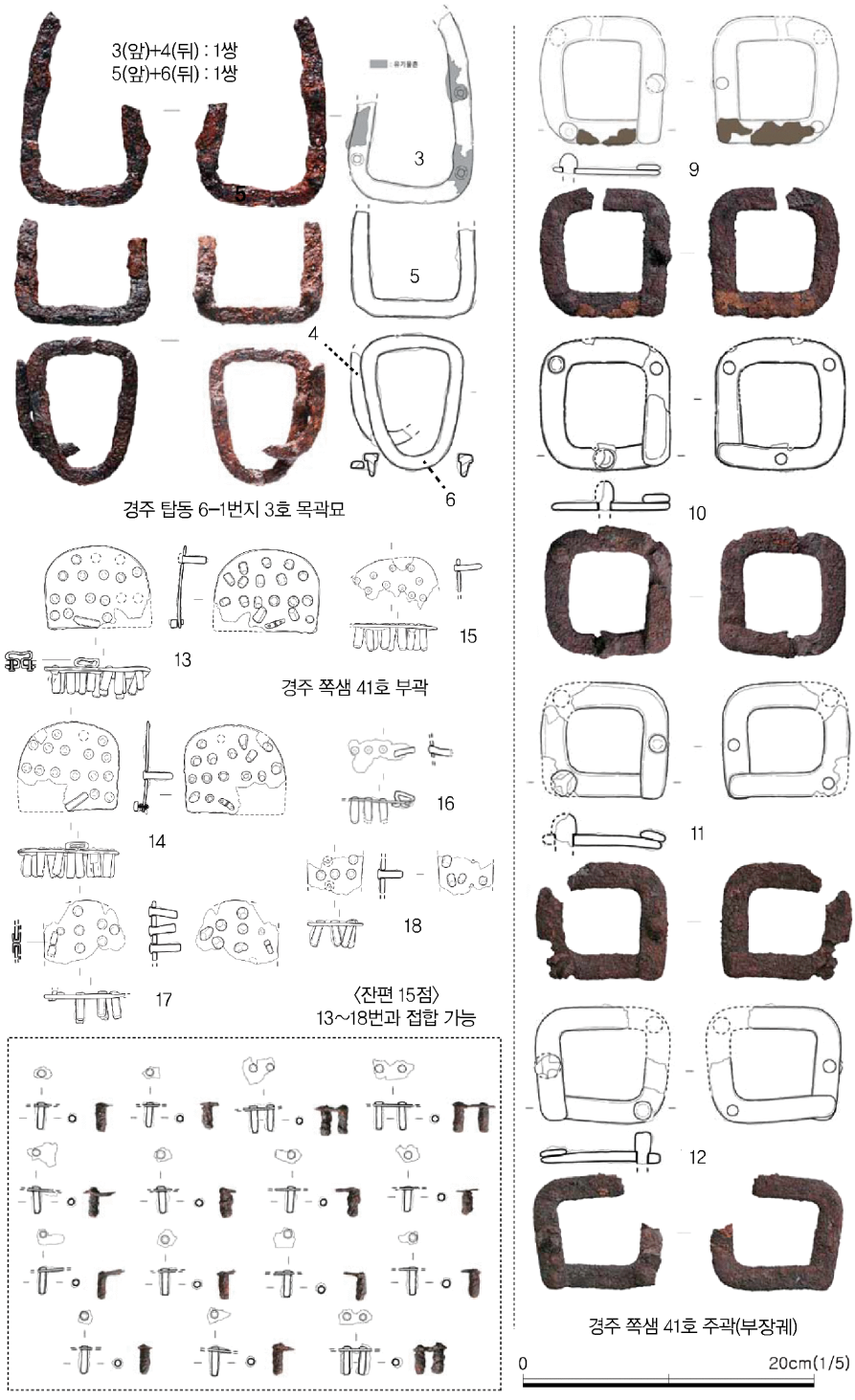
용인 언남리유적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출토품은 '用途不明器'로 표기되어 있다. 지그재그로 투공 3개가 뚫려 있고, 그중 하나에만 못이 남아 있어 형태상 앞선 시기의 기물과 약간 차이가 있다(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245).

춘천 근화동유적 3호 수혈건물지 내부 퇴적토에서 출토된 '용도미상철기'는 기존에 알려진 못신과 형태가 매우 다르다. 답면 자체를 '冂'자형으로 구부린 뒤 波狀을 띠게끔 전후면을 마감하였다. 건물지는 7~8세기로 편년된다((재)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1a: 27; 2011b: 8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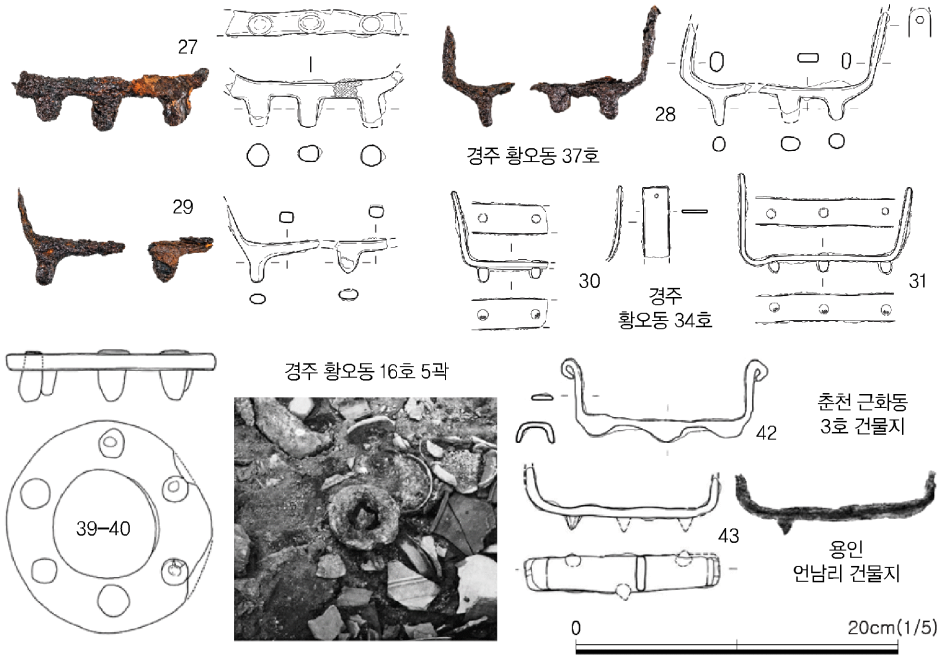
탑동 6-1번지 유적 3호 목곽묘(부곽)에서 '못신' 2쌍이 확인되었다. 앞쪽의 긴 이등변삼각형과 뒤쪽의 짧은 말각이등변삼각형 못신이 1쌍을 이루고 있었다. 일부 결실이 되었지만, 잔존 상태가 양호한 유물을 기준으로 대략의 형태와 규격을 추정할 수 있다(한국문화재재단 2020: 49).

쪽샘 41호 주곽의 부장 궤에서 4점, 부곽에서 6점의 '불명철기'가 수습되었다.[39] 주곽 출토품은 평면 '□'형으로 원래 3개의 못이 있었으나 2개만 확인된다. 부곽에서 수습된 못신은 상원하방형으로 답면의 상단에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리벳이 박혀 있는데, 못의 개수는 제각각이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183;

39) 보고서에는 부곽 출토 불명철기를 5점이라고 했지만, 본문을 보면 6점의 독립 개체가 확인되며, 상기 6점에 부착됐을 법한 잔편 15점이 확인된다.



[그림 7] 한국 소재 못신 일괄: 신라(경주)



[그림 8] 한국 소재 못신 일괄: 신라(경주/외곽)

704~705).[40] 형태가 다른 못신과 많이 달라 주목된다.[41]

경주 황오동 34 · 37호분은 '철제못신'으로 정리되어 있다. 모두 단면 '凵'형으로 34호분 출토품은 답부 아래에 리벳 접합 부위가 그대로 확인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 반면, 37호분 출토품은 못을 돌출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했는데(경북대학교박물관 2024a: 64; 2024c: 151), 크기와 형태가 제각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것이 시기차 때문인지, 양자의 제작 전통 차이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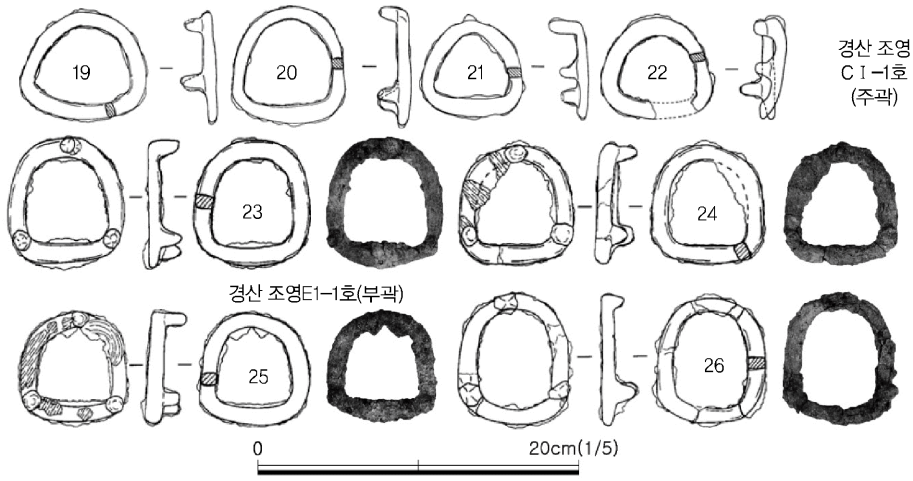
3) 압독권(그림 9)

경산 조영 CⅠ-1호 주곽에서 '三足附鐵環' 4점이 수습되었다. 삼각형에 가까운 타원형의 고리를 만든 후 모서리에 못 3개를 내었다. 고리의 단면은 납작하게 두드린

40) 답면의 크기가 작고, 상단에 고리가 달려 있다는 점, 못의 개수와 배치가 다른 못신과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단도 우선 불명철기로 정리하고, 그 기능을 못신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41) 형태상 방형이기는 하지만,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방형의 철대를 주조로 만든 것이 아니라, '一'자형 철대를 방형으로 구부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접합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 기법상 고구려의 방형 철제못신과 직접 연결됐다기보다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방형이다(嶺南大學校博物館 1999a: 83~84). 경산 조영 ＥⅠ-1호 부곽에서 출토된 삼족부철환 역시 4점으로 ＣⅠ-1호 주곽에서 출토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조사단은 마구의 일종으로 보았다(嶺南大學校博物館 2000a: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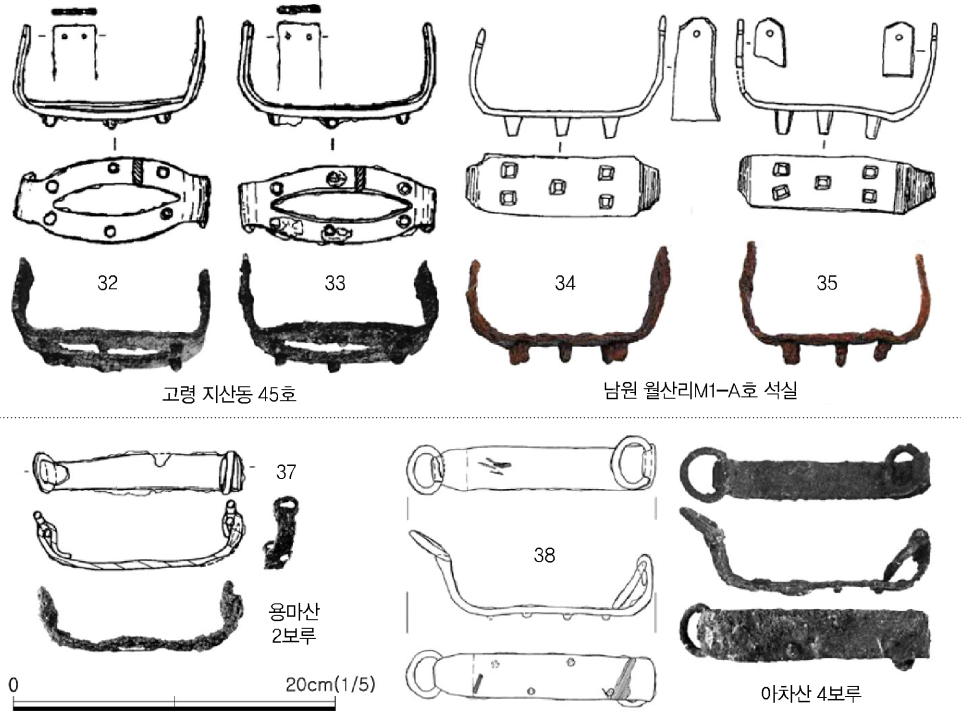
[그림 9] 한국 소재 못신 일괄: 압독

4) 대가야권(그림 10)

고령 지산동 45호분의 경우, 본문에는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 않았지만, 도판에는 이를 '鐵製鐙子'라고 적고 있다(경북대학교 박물관 1978: 220 · 281). 하지만, 무덤 내부의 부장품 배치 양상을 보면, 피장자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갑주류와 무구류, 반대쪽에 마구류가 배치됨을 알 수 있는데, 철제못신은 갑주류 · 무구류와 함께 장신구류가 놓인 쪽에서 출토되었다. 남원 월산리 M1-A호 석실 조사단 역시 출토된 못신을 등자로 이해하고, 이를 輪燈과 구분하기 위해 '板鐙'으로 명명하였다(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 46).

5) 한강유역 고구려권(그림 10)

아차산 4보루 4호 건물지에서 '用度不明 鐵器' 1점이 수습되었다. 신부의 양끝단을 한번 말은 후 별도의 고리를 연결하였다(서울대학교박물관 ·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0: 185). 동일한 형태의 '이형철기' 1점이 용마산 2보루 2호 건물지에서도 수습되었다(서울大學校博物館 2009: 130). 아차산 4보루 출토품은 답면의 못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용마산 2보루 출토품은 X-ray를 활용해 총 4개의 못을



[그림 10] 한국 소재 못신 일괄: 대가야(계) · 고구려

확인하였다.

이상 국내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을 보면, 백제 6점, 신라(통일신라) 23점, 압독 8점, 대가야(계) 4점, 고구려 2점 등 총 43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표 2).

이처럼 국내에서는 중국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철제못신이 출토되었으며, 삼국시대 모든 권역에서 출토됐다는 점 또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외 백제권에서 독특한 형태(Ⅱ형)의 철제못신이 확인되는 점, 부여-고구려 계통의 철제못신(Ⅰ형)이 한반도 남부에서 백제권 철제못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식(Ⅲ형)으로 파생된 점, 이 3개의 형식이 6세기대까지 장시간 병존하면서, 못신의 기능과 성격도 변화한 점 등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철제못신이 단순히 북쪽 → 남쪽,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의 단선적인 전파 양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물임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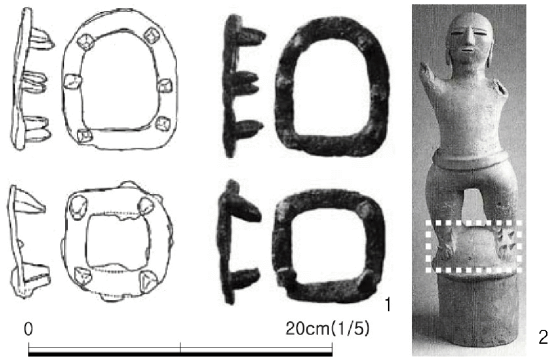
[표 2] 한반도 중남부 출토 철제못신 제원(길이:㎝)

연번	유적(시기)	보고용 명칭	제원						결착방식	유구	비고
			몸체[42]				못				
			형태	길이	너비	두께	길이	개수			
1	풍납3조사갱 /2중~3중	꺾쇠형 철기 (1점)	Ⅱ형	11.6	3.0	0.6	0.4(A)	3	b	관방	백제
2	수양개11호 /3세기초~말	발걸이모양 철기(1점)	Ⅱ형	?	?	?	?(A)	3	b	생활	
3	탑동3호 목곽(부곽) /4후~5전	못신(앞뒤) (1쌍/2점)	Ⅰ형	12.6	8.5	0.5	1.0(A)	(5)	a	분묘	신라
4			Ⅰ형	?	?	0.5	1.0(A)	(3)	a		
5		못신(앞뒤) (1쌍/2점)	Ⅰ형	?	8.5	0.5	1.0(A)	(5)	a		
6			Ⅰ형	9.3	7.0	0.5	1.0(A)	(3)	a		
7	수촌리14호석실 /5세기중반	미상철기 (2점)	Ⅰ형	10.3	7.6	0.4	1.2(A)	5	a	분묘	백제
8			Ⅰ형	?	?	0.3	1.5(A)	(5)	a		
9	쪽샘41호 /5세기중반	불명철기 (ㅁ형)/(4점)	Ⅰ형	8.6	8.6	0.7	1.1(A)	3	a?	분묘 (주곽)	잔편15점 확인/ 신라
10			Ⅰ형	9.2	9.1	0.7	1.4(A)	3	a?		
11			Ⅰ형	7.8	8.7	0.7	1.4(A)	3	a?		
12			Ⅰ형	8.0	(9.2)	0.7	1.4(A)	3	a?		
13		불명철기 (상원하방형) (6점)	Ⅰ형	5.8	7.3	1.9	1.5(A)	(16)	a?	분묘 (부곽)	
14			Ⅰ형	6.2	7.0	2.1	1.7(A)	(15)	a?		
15			Ⅰ형	(3.9)	(5.8)	2.0	1.6(A)	(9)	a?		
16			Ⅰ형	(2.1)	(4.6)	1.9	1.6(A)	(3)	a?		
17			Ⅰ형	(4.0)	(5.6)	2.1	1.5(A)	(6)	a?		
18			Ⅰ형	(1.5)	3.8	2.1	1.5(A)	(4)	a?		
19	조영 C Ⅰ-1(주곽) /5세기3/4분기	三足附鐵環 (4점)	Ⅰ형	6.7	7.9	0.7	1.3(A)	3	a	분묘	압독
20			Ⅰ형	7.3	7.0	0.8	1.2(A)	3	a		
21			Ⅰ형	6.0	6.4	0.6	1.7(A)	3	a		
22			Ⅰ형	6.4	7.0	0.7	1.3(A)	3	a		
23	조영 E Ⅰ-1(부곽) /5세기3/4분기	三足附鐵環 (4점)	Ⅰ형	7.9	7.3	0.8	1.2(A)	3	a	분묘	
24			Ⅰ형	7.4	7.0	0.9	1.2(A)	3	a		
25			Ⅰ형	7.0	6.9	1.0	1.3(A)	3	a		
26			Ⅰ형	7.8	6.8	0.8	1.3(A)	3	a		
27	황오동37호 /5후~말	철제못신 (3점)	Ⅲ형	1.2	11.2	0.7	1.9(A)	3	?	분묘	신라
28			Ⅲ형	1.0	10.3	0.3	1.7(A)	3	?		
29			Ⅲ형	0.8	?	0.4	1.4(A)	3?	?		
30	황오동34호 /5세기말	철제못신 (2점)	Ⅲ형	1.8	?	0.2	0.8(A)	3	d	분묘	
31			Ⅲ형	1.8	9.7	0.3	0.7(A)	3	d		
32	지산동45호 /5말~6초[43]	鐵製楴子 (2점)	Ⅲ형	5.4	11.9	0.5	0.7(A)	6	d	분묘	대가야
33			Ⅲ형	4.9	12.1	0.6	0.7(A)	6	d		
34	월산리M1-A /6세기초반	板鐙 (2점)	Ⅲ형	0.4	12.1	0.4	1.2(A)	5	d	분묘	대가야계
35			Ⅲ형	0.4	12.3	0.4	1.3(A)	5	d		
36	주성리2호 /6전~후	불명철기 (1점)	Ⅰ형	13.4	8.4	?	?	5	a	분묘	백제
37	용마산2보루 /6세기초중반	이형철기 (1점)	Ⅲ형	13.8	2.5	0.4	0.3(A)	4	c	관방	고구려
38	아차산4보루 /6세기초중반	用途不明 鐵器 (1점)	Ⅲ형	12.8	2.1	0.5	?	?	c	관방	
39	황오동16호5곽 /6세기후반	용도미상철기 (2점)	Ⅰ형	12.3	12.3	1.0	3.0(C)	6	a	분묘	신라
40			Ⅰ형	13.0	13.0	1.0	3.0(C)	6	a		
41	부모산성 /6후~7중	미상철기 (1점)	Ⅲ형	0.9	10.9	0.2	1.5(A)	3	?	관방	백제[44]
42	근화동3호건 물지/7중~8전	용도미상철기 (1점)	Ⅱ형[45]	5.2	13.0	0.4	0.9(A)	6	b	생활	신라~통신
43	언남리건물지 /9중~10중	用途不明器 (1점)	Ⅱ형	2.2	11.8	0.6	0.9(A)	3	?	생활	통일신라[46]

3. 일본 출토 자료

일본 高木 18호분에서 '스파이크상 철제품(スパイク状鉄製品)' 1쌍이 출토되었다. 해당 무덤은 고훈시대 중기(5세기 중반~후반)로 편년되는 木棺直葬형 圓墳인데, 내부에서는 鐵劍 3점과 鐵鉾 1점을 비롯하여 鉄鋌, 刀子, 句玉 · 管玉 · 小玉, 粟玉 등이 공반 출토되었다.

상원하방형 1점과 방형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고구려 고분벽화 속 못신과 연결시켜 스모선수의 격투용 타격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보통 이 시기는 백제계 이주민들이 가와치호[河內湖] 연안을 중심으로 한 긴키[近畿]지역에 정착해 세력을 형성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최영주 2020). 즉, 이는 당시 한반도 · 왜의 국제 교류에 있어 고구려계 요소도 포함되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그림 11 · 표 3).[47]



[그림 11] 1. 高木 18호분 출토 スパイク状鉄製品,
2. 飯山登山 1호분 출토 力士埴輪

---

42) Ⅱ형의 '길이'는 정면을 기준으로 踏面의 전후를, '너비'는 踏面의 좌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43) 조사단은 이를 4세기대로 편년했으나(慶北大學校博物館 · 啓明大學校博物館 1979: 276~278), 최근 대가야 고분 편년의 기조에 맞춰 본고에서는 5세기 말~6세기 초로 보았다.

44) 6세기 중반까지 금현성을 둘러싼 청주 일대는 백제의 영역이었으며, 7세기 전반이 되어야 신라의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신광철 2019: 272~276). 그렇게 봤을 때, 부모산성에서 확인된 신라의 흔적을 신라 진출 및 영역화의 근거로 이해하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45) 답면을 잘라서 구부린 형태는 아니지만, 답면에 별도의 못을 부착하지 않았기에 Ⅱ형으로 분류하였다. 백제의 독창적인 Ⅱ형 철제못신의 또 다른 특징은 단일한 원재료를 자르거나 구부려서 만든다는 점이다(현재 ⅡAb형만 확인). 별도의 고리를 달거나, 못을 부착하는 식의 추가 공정을 최소화한 것인데, 제작 시간 · 기간 단축에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46) 강정무(2010: 116~117)는 해당 기물이 비록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에서 수습되었으나 주변에서 백제 토기편이 함께 수습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단양 수양개 · 풍납토성 출토품과 비슷한 시기로 편년했다. 그러나 출토 맥락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는 시기차는 있지만 특정 철제못신 제작 전통이 후대까지 제한된 지역에 남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47) 고구려와 왜 사이의 관련성은 일찍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실물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李炳魯 2002). 하지만 7세기대 기나이[畿內]지역 내 횡구식 석곽의 성립 · 확산에 고구려가 연결된다는 연구(山本孝文(杨萌 譯) 2016)를 보면, 당시 한반도와 왜의 문화교류에 있어 고구려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표 3] 일본 출토 철제못신 제원(길이:㎝)

연번	유적(시기)	보고용 명칭	제원						결착 방식	유구	비고
			몸체				못				
			형태	길이	너비	두께	길이	개수			
1	高木 18호분	スパイク状鉄製品(2점)	Ⅰ형	9.8	7.9	0.9	1.7(A)	6	a	분묘	고구려(?)
2			Ⅰ형	7.5	7.2	0.5	2.2(B)	4	a		

Ⅳ. 철제못신의 의의와 성격

1. 철제못신의 편년과 계통

1) 철제못신의 속성 및 분류

국부형 탈착식 철제못신은 크게 발바닥에 부착하는 평면 環形 또는 方形의 철대 아래에 못이 있는 형태(Ⅰ형), 발바닥과 좌우 측면을 'ㄴ'자형으로 감싸는 철대 하단의 답면 양옆을 잘라서 밑으로 구부린 형태(Ⅱ형),[48] 답면에 못이 나 있는 형태(Ⅲ형)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못 길이를 기준으로 1.9㎝ 이하(A)와 2.0~3.9㎝(B), 4.0㎝ 이상(C)으로 나눌 수 있으며,[49] 마지막으로 결착 방식은 被覆형(a), 捲環형(b), 捲連環형(c), 穿孔형(d)로 구분된다(각주 2 · 표 4).

우선 한중일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을 분류하면,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Ⅰ형이 가장 始原的인 형태이자 보편적인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못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Ⅰ형의 경우 A · B · C형이 골고루 확인된다. ⅠAa型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압독, 왜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ⅠBa型은 부여와 고구려, 왜, ⅠCa型은 고구려, 신라에서만 확인된다. 못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나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각국이 처한 자연지리적인 요소,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못신의 용도와 관련이 클 것이다.

출토 유적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관방 및 생활유적에서 주로 나오는 반면, 부여

48) 강정무(2010: 120~121)는 이러한 형태를 '刺形'으로 구분하고, 이를 백제 못신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듯했다. 논자 역시 그에 동의하며, 이를 Ⅲ형과 다른 별개의 제작 전통이 적용된 결과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

49) 출토 수량을 감안했을 때, 편의상 2㎝ 간격으로 구분한 기술적 범주로서, 그 자체가 특정 기능적 형식과 등치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와 신라 등은 대부분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와 달리 Ⅱ형과 Ⅲ형은 못 길이가 1.9㎝ 이하인 A형만 확인된다. 못 길이가 못신의 용도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했을 때,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Ⅰ형과 달리 Ⅱ · Ⅲ형은 비슷하면서도 한정된 용도로 쓰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표 4] 삼국시대 철제못신의 분류

속성			출토 유적					
대	중	소	관방		생활		분묘	
Ⅰ	A	a	환도산성	고구려			라마동 ⅡM196호 만보정151호 수촌리14호 주성리2호 탑동3호, 쪽샘41호 조영CⅠ-1 · EⅠ-1 高木18호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압독 왜(고구려?)
	B						노하심17호 라마동ⅠM17호(M5호?) 高木18호	부여 왜(고구려?)
	C				채석장유적	고구려	황오동16호5곽	신라
Ⅱ	A	b	풍납3조사갱	백제	수양개11호 언남리건물 근화동3호	백제 신라 ~통신		
Ⅲ	A	c	용마산2보루 아차산4보루	고구려				
		d	(부모산성)	(백제)			황오동 34호(37호?) 지산동45호 월산리M1-A	신라 대가야 대가야계
출토비율[51]			11점(15.5%)		4점(5.6%)		**56점(78.9%)**	

이처럼 Ⅰ형의 이른 사례가 부여권에서 확인되고, 이후 고구려권과 한반도 남부, 왜에서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한편, Ⅱ형이 3세기대 백제에 보인다는 점은 단면 'ㄴ'자 형이 한반도 내에서 자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물론, 4세기 이전 고구려 또는 중원에서 이와 같은 못신이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철제못신의 지역적 특수성과 부여 · 고구려권의 출토 양상을 참작했을 때, 과연 Ⅱ · Ⅲ형의 이른 형태가 향후 중국에서 확인될지는 의문이다.[51]

50) 유수 노하심 11호묘 출토 삼각형 철제못신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1) 라마동유적에서 출토된 삼각형 못신을 보면, 부여 이외 유목민 계통의 철제못신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낙랑을 통해 중원문화권의 철제못신이 이른 시기에 전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관련 실물 자료가 없는 이상, 단면 'ㄴ'자형은 백제에서 먼저 사용되었고, 이후 고구려와의 접촉으로 인해 Ⅲ형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Ⅲ형의 경우, 못 길이는 모두 A형으로 결착 방식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A형의 쓰임새는 거의 같고, 결착 방식만 다른 이유를 시기차 또는 지역 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Ⅲ형은 Ⅰ형과 마찬가지로 백제 · 고구려의 관방 및 생활유적, 신라의 분묘유적에서 나오는데, 이를 보면 철제못신의 형태는 달랐어도 각국의 쓰임새는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철제못신이 가장 많이 확인된 나라는 신라이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Ⅰ · Ⅲ형이 모두 확인되지만(통일신라 제외) 전부 분묘 부장품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고구려의 경우, 철제못신과 달리 청동 · 금동못신은 부장용으로 사용되었는데, 고구려의 墓葬制 영향을 강하게 받은 마립간기 신라에서도 금동못신이 주요 부장품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 철제못신까지도 부장용으로 중요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를 보면 철제못신의 형태 또는 속성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었고, 못신이 갖는 '사회적 의미'나 부장품으로서의 '용도'가 특히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52] 그리고 이는 신라식 금속장신구 · 착장품 부장을 동반한 고총고분 문화의 확산과 함께, 또는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의 가야 諸國에 미친 군사 ·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여러 사회적 변동에 따라 압독이나 대가야, 바다 건너 왜 등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표 5).

한편, 5세기 후반이 되면 Ⅰ형(못신)과 Ⅱ형(철대)의 요소를 함께 갖춘 Ⅲ형(철대+못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이 고구려가 한반도에 진출하기 시작해 백제와 雌雄을 겨루기 시작한 무렵인지, 아니면 한성을 점령해 백제의 舊왕도 일대를 점유한 무렵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성 일대에서 수백 년간 존속했던 Ⅱ형의 제작 전통이 통일신라시대까지 남았다는 것 또한 Ⅱ형의 시원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단, 백제에서 Ⅱ형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Ⅱ · Ⅲ형이 형태상 등자와 유사하다고 했을 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점의 철제등자가 몽골 Khukh Nuur유적(3세기 말~4세기 초) 출토품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른 시기 등자가 표현된 도용(271/302)이 중국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Jamsranjav Bayarsaikhan 외 2024), 재질을 떠나 등자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Ⅱ형 못신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尙存하므로 추가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그 기원과 계통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보류하도록 하겠다.

52) 4세기 3/4분기에 고구려를 경유한 허리띠가 쪽샘 L17호에서 출토된 이래 경산 · 경주 일대에서 귀걸이와 과판, 성시구, 귀걸이, 금동신발 등 다양한 장신구들이 4~6세기에 걸쳐 확인된다(김재열 2024: 70~105). 금동못신은 철제못신보다 늦게 무덤에 부장되는데, 철제 · 금동못신 부장 풍습이 고구려에서 같이 전해졌으나 신라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주목됐을 가능성, 양자가 시차를 두고 신라로 전해졌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

[표 5] 삼국시대 철제못신의 권역별 특징

		수량	출토지	시기	형식	특징
부여		14(+1)	분묘	기원전후~4세기	Ⅰ	선비(삼각형)와 다른 계통
백제		6	관방 분묘, 생활	2~7세기	Ⅰ, Ⅱ, Ⅲ	실용기 》 의례용기 독창적인 **Ⅱ형** 제작
고구려		14	관방, 분묘	4~6세기	Ⅰ, Ⅲ	실용기 》》 의례용기 철제(실용기)/금동제(부장용)
신라	삼국	21	분묘	4~6세기	Ⅰ, Ⅲ	실용기 〈〈〈 의례용기 철제 · 금동제(부장용) **통일 이후 성격 변화** **– 백제의 영향 /舊 백제권**
	통신	2	생활	7~10세기	Ⅱ	
압독		8	분묘	5세기	Ⅰ	신라의 영향/고구려의 영향?
대가야(계)		4	분묘	5~6세기	Ⅲ	신라의 영향/자체 발전
왜		2	분묘	5세기 중후엽	Ⅰ	고구려의 영향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쇠발걸이[鐵製鐙子]로 등록된 소장품(수집품)이 있는데, 형태는 모두 Ⅱ형이다(그림 12). 길이는 대략 너비 11.6~13.5㎝ 규모로 출토지 不明이다. 하지만, 상기 내용을 감안한다면, 백제에서 제작되었거나, 통일기 이후 舊백제권 제작품일 가능성이 크다.[54]



[그림 12] 쇠발걸이(고적27695)[53]

2) 철제못신의 분포 및 전개 양상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출토된 못신이 한국에서 출토된 것보다 시기가 빠르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북쪽 → 남쪽으로의 문화 전파를 상정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특정 시점(2~3세기대/4세기 후반 이후)에 철제못신 제작 · 사용이 집중되고 있어 단순한 문화 교류 · 전파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물이 특정 시점에, 특정한 연유로 전파/수용 · 변형되었음을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

---

53) 현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을 보면 위아래가 뒤집혀 있다. 향후 해당 기물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면, 이러한 오류는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54) 고적품 특성상 등록 순서의 맥락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앞뒤 번호의 소장품을 통해 해당 유물의 제작 주체 및 시점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못신의 결착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든데, 만약 철대 신부를 구부린 b형이라면 삼국시대 백제 제작품일 가능성이 크고, 철대 신부에 구멍을 뚫은 d형이라면, 신라와의 문화 접변의 결과물로서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舊백제권 제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출토 양상을 보면 이른 시기에 부여권(Ⅰ형)과 백제권(Ⅱ형)에서는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형태의 철제못신이 등장하는데, 두 형식은 서로 상관성이 있다기보다 각자 별개의 발생-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적이 적절할 것이다.

Ⅰ형은 신발 바닥에 못이 부착된 형태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못의 길이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와 달리 Ⅱ형은 답면 일부를 잘라 아래로 구부렸기 때문에 못의 길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길이가 채 1.0㎝도 되지 않아 실용기로 쓰였다면 발이 깊게 빠지는 진창이나 습지, 산지보다는 빙상과 같은 단단한 지반에서의 미끄럼 방지용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4세기대에 접어들면 고구려부터 시작해 본격적으로 삼국 각지에서 철제못신이 사용되는데, 중국 출토 고구려 철제못신만 못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 황오동 16호 5곽 출토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A형이다. 못신의 형태와 상관없이 못 길이가 전부 짧다는 점을 통해 첫째, 다양한 용도로 못신을 사용했던 고구려와 달리 한반도 남부에서는 '단일한 용도'로만 사용했을 가능성, 둘째, 집안지역과 달리 한반도 남부에서는 못의 길이가 '짧은 못신만 사용'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못신이 출토된 유적의 성격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진다. 신라권은 모두 분묘 유적 출토품[55]으로 통일기가 되어야 생활유적에서 Ⅱ형이 소량 확인된다. 하지만 백제 · 고구려권에서는 관방 · 생활유적에서 못신이 주로 출토되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북쪽에서 A~C형을 고르게 사용했던 고구려가 남쪽에서는 A형만 사용했던 것을 보면, 실용기로서의 못신의 용도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고구려가 남하한 이래 북쪽과 다른 남쪽의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56]

한편, Ⅰ형과 함께 백제와의 문화 접변을 통해 발생한 Ⅲ형도 고구려의 영역 확장과 함께 남쪽으로 전파되는데, 이후 6세기를 기점으로 한반도에서는 Ⅰ형 대신 Ⅲ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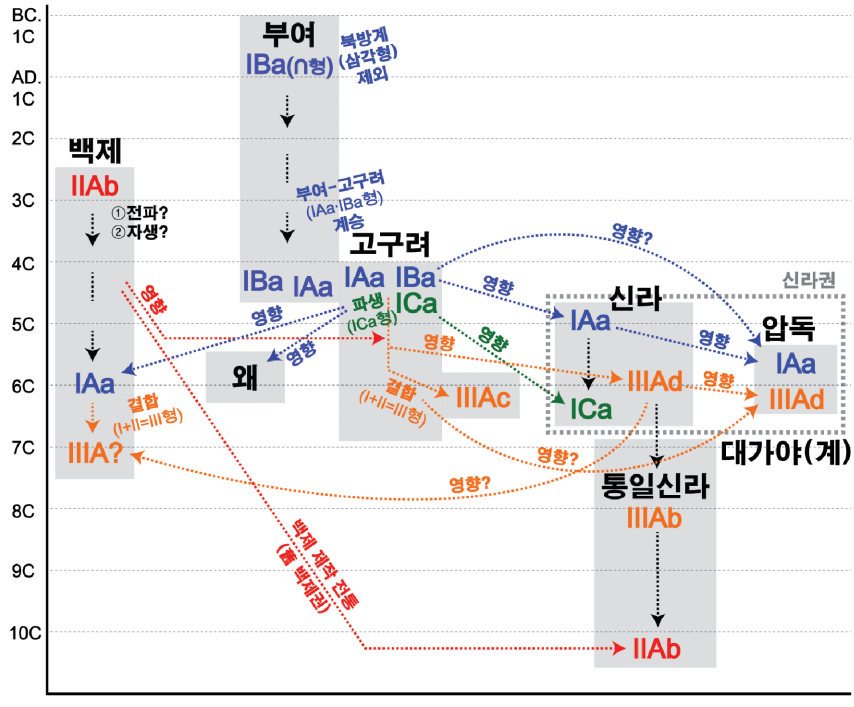
55) 못신에 난 못의 크기를 보면 처음에는 3개로 시작해 3개 · 5개가 공존하다가, 5개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신라권에서 부장품으로 쓰인 못신을 보면 3개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제작 기법상 3개가 안정적인 Ⅱ형과 달리 Ⅰ · Ⅲ형은 못이 많을수록 접지력이 늘어났을 텐데도 3개를 유지했다는 점은 실용기보다는 부장품으로서의 용도로 못신이 인식되었음을 방증한다.

56) 유럽의 경우, 할슈타트문화 또는 라텐문화의 철제못신은 금속 생산과 연관된 산악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며, 초기에는 주조기법(청동제)이, 후기에는 리벳접합과 철판 절곡기술(철제)이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복잡한 형식이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철제못신이 제작 · 사용되고 있어 독자적인 '알프스형 문화 모델'을 만들어낼 정도로 풍부한 자원과 숙련된 제작기술 전통을 갖춘 지역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금속가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후대 제철기술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Vasilache, S. 2019). 이러한 도식은 동아시아 철제못신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주류를 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살펴볼 것이 일본 출토품이다. 4세기 말부터 河内평야에 유입되기 시작한 한반도계 문물에는 가야를 중심으로 백제 · 신라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5세기 전엽 이후에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유물이 증가하고 뒤이어 중 · 소형 분묘에서도 한반도계 부장품이 확인되기 시작한다(井上主税 2021). 이는 백제 · 영산강유역 · 서부가야 등지에서 건너온 한반도계 이주민이 近畿지역에 정착해 재지사회와 융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中久保辰夫 2019).

즉, 高木 18호분에서 한반도계 문물이 나오면, 인근의 여타 유적을 참고했을 때 한반도 남부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출토 기물을 보면, 고구려 출토품과 계통적 유사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당시 고구려의 남하와 관련하여 전쟁과 별개로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당시 한반도에서 다양한 계통의 문화가 뒤섞여 왜로 건너갔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그림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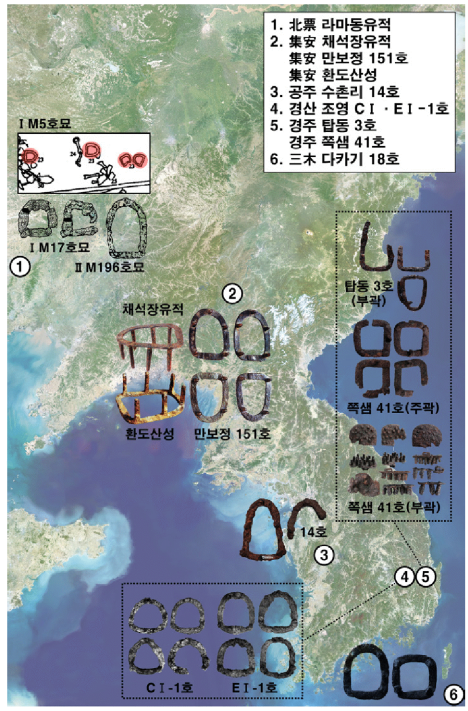


[그림 13] 삼국시대 철제못신 전파 추정 경로

57) 스모선수 형상 하니와의 발에 차는 타격구가 한반도계(고구려계) 철제못신을 變容한 것이라면, 6세기 전반까지 그와 관련된 문화요소가 왜에 남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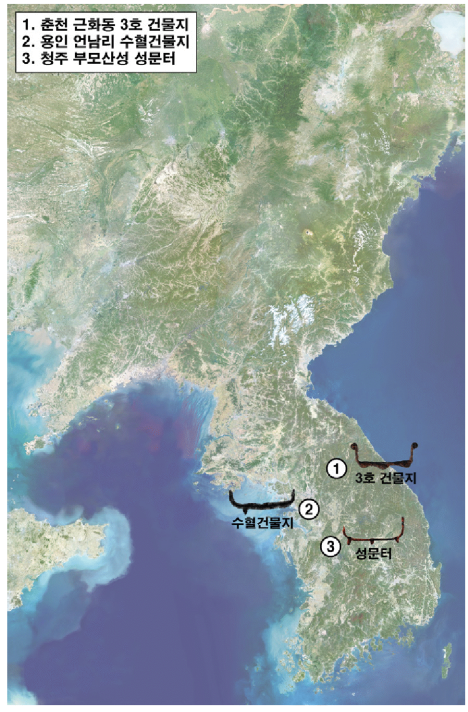
기원전후~3세기대 철제못신 사례



4세기 초반~5세기 후반 철제못신 사례



5세기 말~6세기대 철제못신 사례



6세기 후반 이후 철제못신 사례

[그림 14] 삼국시대 철제못신 분포 현황

정리하면, 고대 한국의 철제못신은 크게 **'부여-고구려 계통(Ⅰ형)'**과 **'백제 계통(Ⅱ형)'**으로 나뉜다. 4세기 중후반 이후 고구려와 백제가 본격적으로 대립하면서 한반도 중남부에서 두 형식이 竝存하게 되고, 5세기 중후반에는 Ⅰ형이 바다 건너 왜에까지 전파된다. 5세기 후반에는 양자(철대+못신)가 결합해 **'한반도 남부 계통(Ⅲ형)'**으로 변형되면서 두 형식의 제작 전통이 신라를 매개로 영남지역 각지에 전파됐다고 할 수 있다.[58] 단, 통일신라 이후에도 지역별로 철제못신 제작 전통은 남아 있었으나, 철제못신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점차 소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한편, 철제못신의 機能이 '미끄럼 방지용'이라는 것에는 대개 이견이 없으나 用途에 대해서는 등산용, 우천용, 진창용, 채석용, 빙상용 등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 실제 중국 소재 부여 · 고구려 철제못신은 못 길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에 쓰였을 법하지만, 한반도에서 출토된 기물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며, 용도 역시 점차 제한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2. 철제못신의 역사적 의의

1) 철제못신의 용도와 기능: 문헌사료 검토

중국 문헌에는 삼 · 칡 · 풀 · 가죽 등으로 만든 홑창 신발인 '屨', 귀하게 취급되던 겹창 신발인 '舃', 비단 · 가죽 · 나무 · 포 등으로 만든 홑창 신발이자 漢代 이후 신발의 총칭으로 쓰이는 '履', 바닥은 나무, 윗부분은 나무나 삼 · 천 · 가죽 등으로 만든 '屐' 등 다양한 신발 명칭이 등장한다(王瑞 · 韩容洙 2021).

그중 본고에서 다룰 것은 '나막신[屐]'이다. 『康熙字典』에는 이를 '받침 또는 굽이 달린 신발'로 정의하고 있는데,[59] 본고에서 다루는 못신의 개념과 가장 부합한다.[60]

---

58) 고구려에서 신라로의 철제못신 문화 전파와 달리, 압독 · 대가야권 등으로의 문화 전파가 고구려에 의한 것인지, 신라에 의한 것인지는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연계 아래 이루어진 문화 전파에 있어 양국의 비중을 정확하게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59) 『康熙字典』, "【廣韻】【集韻】奇逆切, 【韻會】【正韻】蹻戟切, 音劇. 【說文】屩也. 从履省, 支聲. 【增韻】木屐也. 【晉書 · 宣帝紀】懿使軍士三千人, 著軟材平底木屐前行, 然後馬步俱進. 或作蹏. 【莊子 · 天地篇】蹏屩爲服."

60) 『漢書』 卷29, 溝洫志9, "夏書: 禹堙洪水十三年, 過家不入門. 陸行載車, 水行乘舟, 泥行乘毳, 山行則**梮**, 【如淳曰: 「梮謂以鐵如錐頭, 長半寸, 施之履下, 以上山, 不蹉跌也.」 韋昭曰: 「梮, 木器, 如今輿床, 人舉以行也.」 師古曰: 「如說是也. 梮音居足反.」】以別九州." 夏禹가 13년간 治水에 힘쓰면서 돌아다닐 때 산길에서는 '梮'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如淳은 '길이 반촌 정도의 철을 송곳 끝처럼 만들어 신발 밑에 부착한 것'으로 보았으며, 韋昭는 이를 나무로 만든 가마로 해석했지만, 顔師古는 여순의 견해를 따랐다. 이는 징신과 비슷한 형태로서 일찍부터 신발 바닥에 마찰을 주어 등산시 미끄럼을 방지하는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례

문헌을 살펴보면, 나막신은 크게 '일상용품', '상징물 및 비유 대상', '군사용품'의 3가지 개념으로 이해 가능하다.

먼저 본래의 기능인 신발로서의 의미이다. 이는 다시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박한 신발[61]이나 서민의 혼수품[62]과 같은 ①'일상용품', 관리들이 官府에서 갈아 신는 실내용 신발[63]이나 부장용 신발,[64] 왕족[65] 또는 권세가의 상징물[高屐][66] 같은 ②'위세품', 진창을 밟거나 비가 내릴 때,[67] 산에 오를 때 신는 ③'특수용도'[68]의 신발이 그러하다.

그중 謝靈運(385~433)의 사례가 눈에 띈다. 그가 산을 오르내릴 때 늘 목제나막신[木屐]을 신었는데, 올라갈 때에는 앞쪽 받침[前齒]을 떼어내고, 내려올 때에는 뒤쪽 받침[後齒]을 떼어냈다[69]고 한다. 나막신이 필요에 따라 기존 신발에 부착하는 형태의 탈착식 부속구임을 알 수 있다.[70] 한편, 唐 朱放(8세기 후반)의 시를 보면, 눈 속에서 신는 등산용 나막신[登山屐][71]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連齒木屐'이라 하여 굽이 여러 개인 나막신의 존재[72]도 눈에 띈다.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진 나막신이 있었

라고 할 수 있다.

61) 『急就篇』 卷2, "**屐**屨手寫字麤麤窶貧."

62) 『後漢書』 卷83, 逸民列傳73, "戴良 … 初, 良伍女並賢, 每有求婚, 輒便許嫁, 疏裳布被, 竹笥**木屐**以遣之. 伍女能遵其訓, 皆有隱者之風焉."

63) 『宋書』 卷15, 志5, 禮2, "史臣按: 「今朝士詣三公, 尚書丞 · 郎詣令 · 僕射 · 尚書, **並門外下車, 履, 度門閾乃納屐.**"

64) 『南齊書』 卷21, 列傳2, 文惠太子, "時襄陽有盜發古塚者, 相傳雲是楚王塚, 大獲寶物**玉屐** · 玉屏風 · 竹簡書 · 青絲編."

65) 『南史』 卷44, 列傳34, "南海王子罕 … **秀後輒取子罕屐** · 繖 · 飮器等供其兒昏."

66) 『南史』 卷78, 列傳68, 夷貊上, "天竺 … 元嘉中, 遂參權要, 朝廷大事皆與議焉. … 琳著**高屐**, 披貂裘, 置通呈書佐, 權侔宰輔." 『顔氏家訓 · 勉學』, "梁朝全盛之時 , 貴遊子弟 … **跟高齒屐**, 坐棋子方褥 , 憑斑絲隱囊 , 列器玩於左右 , 從容出入 望若神仙."

67) 『釋名』 釋衣服, "**屐**, 搳也. 為兩足搳以**踐泥也**." 『新唐書』 卷154, 列傳88, 孔穆崔柳楊馬 "郾 … 室處庳漏, 無步廡, 至霖淖, **則客蓋而屐以就外位**."

68) 『農書』 卷13, "**耘盪**, 江浙之間新制也, **形如木屐**, 而實長尺餘, 闊約三寸, 底列短釘二十餘枚. 簨其上, 以貫竹柄, 柄長伍尺餘." 元代에는 '운탕'이라는 농기구가 개발되는데, 나막신과 비슷하다고 묘사했지만, 위에 자루를 끼워 쓰는 도구로 신발 부속구로 볼 수 없다.

69) 『南史』 卷19, 列傳9, "謝靈運 … 尋山陟嶺, 必造幽峻, 巖嶂數十重, 莫不備盡. **登躡常著木屐, 上山則去其前齒, 下山去其後齒**."

70) 사령운이 신었던 '등산극'은 이후 '謝(公)屐', '山屐' 등으로 불렸다. 唐 李白의 시 「夢游天姥吟留別」(謝屐), 劉長卿의 시 「送嚴維赴河南」와 朱景玄의 시 「華山南望春」(山屐)에 용례가 나오는데, 기능성 신발보다는 隱逸 · 山水遊覽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 주목된다.

71) 「經故賀賓客鏡湖道士觀」, "**雪裏登山屐**, 林間漉酒巾."

72) 『南史』 卷1, 宋本紀上1, "宋高祖武皇帝, … 性尤簡易, **嘗著連齒木屐**, 好出神武門內左右逍遙, 從者不過十餘人."

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둘째, 특정 상징물 또는 비유의 대상이다. 延熹 연간(158~167) 당고의 금[黨事]과 관련된 혼란과 구속의 징조,[73] 太康 초기(280~289) 남녀 나막신에 구별이 없어진 점을 국가 질서 붕괴로 해석한 사례,[74] 과거에는 나막신의 굽[齒]을 답면[楅] 위에 드러나도록 만들다가[露卯] 太元 연간(376~396)에 이를 감추기 시작했는데[陰卯], 이를 사회적 혼란과 연결 지은 사례,[75] 나막신을 신고 다른 이를 방문하는 행위[屐而候之]가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된 사례,[76] 元康 5년(395), 화재로 사라진 聖人의 유물(공자의 나막신),[77] 일상의 사소한 일[履屐間]이라는 의미,[78] 神仙 · 道術과 관련된 神異한 존재,[79] 꿈에 나온 '뽕나무 나막신[桑屐]'을 제위 등극의 예언적 상징으로 해석한 일,[80] 밟혀도 말이 없는 존재, 비굴하게 권세에 빌붙는 태도를 풍자,[81]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젊은이라는 뜻의 비하,[82] 개성 및 허세의 상징[83]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된다.

마지막은 특수한 기능을 지닌 군사용품으로서의 의미이다. 234년, 사마의가 부드러운 재질의 편평한 바닥을 가진 '목제나막신[平底 · 太平木屐]'을 신고 進軍路 상의 남가새[蒺藜]를 제거한 뒤 병력을 이동시킨 사례,[84] 328년, 후조의 석륵이 유요를 공

---

73) 『後漢書』 志13, 五行1, "延熹中, 京都長者皆著木屐. … 此服妖也. 到九年, 黨事始發, 傳黃門北寺, … 九族拘繫, 及所過歷, 長少婦女皆被桎梏, 應木屐之象也."

74) 『晉書』 卷27, 志17, 伍行, "初作屐者, 婦人頭圓, 男子頭方. … 至太康初, 婦人屐乃頭方, 與男無別. 此賈后專妒之徵也."

75) 『晉書』 卷27, 志17, 伍行, "舊為屐者, 齒皆達楅上, 名曰露卯. 太元中忽不徹, 名曰陰卯. 識者以為卯, 謀也, 必有陰謀之事." 『宋書』 卷30, 志20, 伍行1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76) 『晉書』 卷67, 列傳37, 愔子超, "王獻之兄弟, 自超未亡, 見愔, 常躡履問訊, 甚修舅甥之禮. 及超死, 見愔慢怠, 屐而候之, 命席便遷延辭避."

77) 『晉書』 卷27, 志17, 伍行, "惠帝元康5年閏月庚寅, 武庫火. … 是以累代異寶, 王莽頭, 孔子屐." 『晉書』 卷36, 列傳6, 張華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78) 『晉書』 卷79, 列傳49, "超曰: 「吳嘗與玄共在桓公府, 見其使才, 雖履屐間亦得其任, 所以知之」"

79) 『太平御覽』에는 동진대 저서인 『神仙傳』 및 유송대 저서인 『異苑』, 당대 저서인 『集異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나막신이 神異를 상징하는 기물로 등장하고 있다.

80) 『南齊書』 卷18, 志10, 祥瑞, "夢著桑屐行度太極殿階. … 謂著屐為木行也. 屐有兩齒有聲, 是為明兩之齒至四十二而行即真矣." 『南史』 卷7, 梁本紀中7 武帝下에도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

81) 『梁書』 卷53, 列傳47, 良吏, "孫謙, … 爽嘗有求不稱意, 乃為屐謎以喻廉曰: 「刺鼻不知嚏, 蹋面不知瞋, 齧齒作步數, 持此得勝人」 譏其不計恥辱, 以此取名位也."

82) 『魏書』 卷65, 列傳53, "邢巒 … 巒表曰: 「… 蕭淵藻是裙屐少年 …」" 『北史』 卷43, 列傳31, 邢巒전에 동일한 기사가 실려 있다.

83) 『北史』 卷82, 列傳70, 儒林下, "… 道暉好著高翅帽·大屐."

84) 『晉書』 卷1, 帝紀1, 宣帝, "關中多蒺藜, 帝使軍士二千人著軟材平底木屐前行, 蒺藜悉著屐, 然後馬步俱進." 『太平御覽』 卷698, 服章部15, "屐 … 【晉宣帝雜教】云: 「當五作太平木屐遇踐 時有蒺藜屐行, 蒺藜悉著屐底.」"

격할 때 '철제나막신'에 못을 박아[鐵屐施釘] 성을 오르게 한 사례,[85] 454년, 경릉왕 劉誕의 군대가 '죽제나막신[篾屐]'을 신고 늪지 일대[菰葑]에서 전투를 벌인 사례[86] 등을 꼽을 수 있다.[87]

상기 사례들을 검토했을 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추려낼 수 있다.

첫째, 나막신이 서민 또는 상위 계층의 신발이자 부장용 · 등산용 · 雪霜용 · 雨天용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박한 신발 또는 우천 시 진창에서 신는 신발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의미가 점차 넓어져 唐代에는 隱逸과 山水遊覽의 상징으로까지 인지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漢代 이래로『진서』,『송서』,『남제서』,『양서』,『남사』 등 南朝계(한족) 사서에서 다수의 용례가 확인되고 있다. 기능상 北朝(이민족)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을 텐데 이와 같은 기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기록이 偏在한 탓도 있겠으나, 남북조가 서로 다른 신발 문화를 영유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동북지역 및 한반도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문헌상 나막신은 대부분 목제로 후조의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이다. 희소하지만 철제신발[鐵履/鐵鞋] 또는 鐵屐의 존재가 인지됐었고,[88] 탈착식 못신 또한 완전 새로운 기물은 아니었기에 석륵(갈족)이 鐵屐을 처음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철극을 군사적으로 활용한 가장 이른 사례라는 점은 분명하며, 非漢族 관련 사례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나막신 관련 기록의 등장 시점이다. 대략 3~6세기 후반으로 추려지는데, 이는 중국과 국내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의 편년과도 맞물린다. 재질

---

85)『太平御覽』卷698, 服章部15, "屐 … 又曰:「石勒擊劉曜, 使人著鐵屐施釘登城.」"『태평어람』에는『晉書』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 저본으로 삼은 臧榮緖의『진서』혹은 당시 晉史를 다룬 십수 종의 사료에 전하던 기록으로 판단된다.

86)『宋書』卷79, 列傳39, 文伍王, "竟陵王誕, … 與彬之等相逢於曲阿之奔牛塘, 路甚狹, 左右皆悉入菰葑, 彬之軍人多齎篾屐, 於菰葑中夾射之, 欽等大敗."

87)『資治通鑑』卷232, 唐紀48, 唐德宗貞元三年七月條, "上入駱谷, 值霖雨, 道途險滑 … 相與齧臂爲盟, 著行縢 · 釘鞾,【三省曰:「釘鞾, 以皮爲之, 外施油蠟, 底著鐵釘.】更乾上馬以至梁州, 他人皆不得近." 호삼성은 釘鞾를 '쇠못을 박은 기름 먹은 가죽신'으로 注解하였는데, 탈착식 못신이 후대에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군용품으로 보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88)『太平御覽』卷47, 地部12, 會稽東越諸山, "宋元嘉中, 有人於船側掘, 得鐵屐一雙." 이는 남송대(1201~1204) 저서인『嘉泰會稽志』卷13,〈石船 · 石帆 · 鐵履 · 鐵屐〉조에도 수록되어 있다. 塗山에 禹가 탔다고 하는 돌배[石船]가 있는데, 그 옆을 파보니 鐵履 11量이 나왔으며, 송 元嘉(424~453) 중에는 그 옆을 파서 鐵屐 1雙을 얻었다고도 한다. 기이담 또는 도가류의 전승이기는 하지만 중원문화권에서 해당 기물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지는 않았던 듯하다.

은 다르지만, 그 용도가 각 문화권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석륵의 사례처럼 고구려 역시 공성전에 철제못신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시기 동아시아에는 중장기병 문화가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었는데(신광철 2020), 고구려 중장기병의 도입 시점과 기원에 대해 전연(모용선비) 이 외에 후조를 주목하는 시각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余昊奎 1999: 64). 당시 전연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오히려 후조로부터 중장기병이 도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정동민 2017: 24~26), 고구려와 화북 각지의 문화 요소가 접변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 하나만을 주목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지만, 후조와 고구려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석륵의 사례가 전해졌고, 그와 관련된 기물이 고구려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즉, 일찍이 한대부터 목제나막신을 활용해 왔던 중원문화권과 달리 타 문화권에서는 철제못신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원에서는 신발의 기능은 유지한 채 그 용도와 의미가 점차 확산했지만, 타 문화권에서는 부장품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 것으로 생각한다. 고구려 · 백제와 달리, 신라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마립간기 적석목곽묘 축조에 따른 부장 풍습 확립 및 고구려 · 중원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록 재료는 달랐어도 등산용 · 우천용 · 빙상용 · 군사용 등 각 문화권에서의 쓰임새는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다만, 철제못신을 공성전에 활용한 후조의 사례는 特記할 만한 것으로서, 고구려에 있어 土城이 주축인 백제 공략을 염두에 두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攻城무기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6세기 화북 諸 왕조와 고구려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장기병 및 마구류 등이 전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석륵의 사례는 非漢族 계통의 군사문화에서 철제못신이 공성전 등 특수 용도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고구려 철제못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신라 또는 가야 諸國의 부장 양상을 살펴봤을 때, 철제못신이 武具類와 같이 출토되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철제못신의 변형: 용도 변환과 금동못신의 전파

상기 내용을 토대로 철제못신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Ⅰ형 철제못신을 부장품으로 사용한 부여 및 Ⅱ형 철제못신을 사용했던 백제(Ⅰ기), 부여의 전통을 계

승한 고구려의 남하로 전해진 고구려 철제못신 문화의 '1차 전파'(Ⅱ기), 고구려의 남하 이후 Ⅰ·Ⅱ형이 결합해 새롭게 발생한 Ⅲ형 및 그에 따른 '2차 전파'(Ⅲ기)로 나눠볼 수 있겠다.

Ⅰ·Ⅱ기의 분기점은 4세기 중후반 고구려의 본격적인 남하, Ⅱ·Ⅲ기의 분기점은 '475년 漢城 戰役' 등 한강 유역의 정치적 변동이 급격해지던 시기와 대체로 겹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고구려의 남진과 연쇄적인 이주민의 발생, 한반도계 문물의 일본열도 정착·재지화 과정 속에서 고구려계 철제못신이 왜에 移入, 부장품으로 남겨지게 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동안 4~6세기 한반도계 문물의 전파 과정 속에서 백제, 가야,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고구려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89]

더불어, 5세기대에는 고구려의 副葬 專用 금동못신이 남쪽에 전해지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금동못신 부장 풍습이 빠르게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주에 Ⅰ형 철제못신의 부장 풍습이 지속되는 와중에 Ⅲ형이 도입되었지만, 전자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는 점, 4~6세기 마립간기 최상위층 적석목곽묘에는 철제못신 대신 금동못신이 부장된다는 점, 그리고 고구려식 금동못신 문화에 백제의 제작 전통을 받아들여 신라만의 독자적인 금동못신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박수동 2015).

신라 금동신발의 표준형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透彫 亅 亠 紋式'이며, 투조 문양이 생략된 '無紋樣式'(금령총)과 고구려 제작 전통의 영향을 받은 '底板式'(경산 조영 EⅡ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 황남대총 북분에는 고구려産,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 식리총에서는 백제産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김재열 2024: 62~65). 금동못신이 신라 내에서 중요한 부장품이자 최고위층의 위신재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알려주는 기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5세기 중반 이후 백제에서도 고구려 사상 체계 및 장식무늬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금동못신을 제작하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백제산 금동못신이 타 문화권으로 확산하기에 이른다(전정은 2023: 131~169).

---

89) 스모선수 형상 하니와의 발에 표현된 돌출부가 철제못신을 거꾸로 발등에 부착해 타격구로 변용한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 일본 全国古墳データベース 사이트(https://zenkoku-kofun.nara-hgis.jp)에서 검색 가능한 인물형 하니와 출토지는 총 369개소이다('26.8.25. 검색). 그중 스모선수 형상 하니와는 40개 정도이며, 그나마 足部 확인이 가능한 개체는 채 10개도 되지 않는다. 향후 관련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는 바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의 탈착식 못신이 사라지면서 신발에 직접 못신 또는 장식을 고정한 형식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백제에서는 바닥 전면 또는 바닥의 앞부분에 못신을 박았으며, 신라에서는 못신 대신 花紋 장식을 박거나 영락을 신발 전면에 다는 식으로 변화하다가 종래에는 장식이 퇴화하였다. 또한, 경주 중심부의 무덤에서는 외래산 부장품의 비중이 적은 편인데, 금동신발의 경우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 금동신발 자체가 갖는 의미가 신라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김재열 2024: 82).

마무리하면, 삼국 후반(6세기 후반)이 되면 철제못신은 실용기로서의 지위를 거의 상실해 금동못신과 함께 부장용으로 인식되었고, 7세기대가 되면 사회 변동, 묘제의 변화에 따른 묘장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금동못신과 함께 위세품으로서의 가치마저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확인 가능한 사례를 최대한 수집하고, 관련 사료를 대조하여 철제못신의 성격을 새롭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국 소재 27점, 한국 소재 43점, 일본 소재 2점 등 총 72점을 추출하였으며, 출토 맥락을 알 수 없는 소장품 사례까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철제못신은 미끄럼 방지 등 실용적 목적뿐 아니라 의례용기 · 부장품으로도 기능하였다. 다만 삼국~통일신라시대 각 권역에서의 수용 양상은 동일하지 않았다. 고구려 · 백제에서는 실용기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신라 및 기타 지역(압독 · 대가야권)에서는 부장품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철제못신의 변천과 확산을 단선적 전파로 환원하기보다, 각 정치체의 묘장제와 위신재 체계, 그리고 실용 도구의 의례화 과정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집안시 출토품을 보면 청동못신 중에도 실용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송산리고분 출토품(고적23227)[90]이나 96년 구입품(신수13710 · 신수13711)을 보면, 금동못신 역시 형태가 다양해서 의례용기라 하더라도 단일한 시각으로 살펴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5).[91]

---

90) 정확한 출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무령왕릉을 제외한 송산리 고분군에서 금동식리가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국립공주박물관 · 공주시 2012: 166).

91) 철제 탈착식 못신과 금동못신 사이에는 '못이 달린 신발(부속구)'이라는 관념적 · 형태적 공통성이 존재하지



[그림 15] 집안시 출토 청동못신(左)과 송산리고분군 출토품(右上), 96년 구입품(右下)

끝으로 본고는 제한된 자료 여건 속에서 철제못신의 유형 분류와 성격을 해석하였으나, 출토 정황 · 결착 방식[92] · 사용 흔적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확보된다면 보다 정밀한 논증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새로운 자료의 축적과 과학적 분석(마모 · 변형, 재질, 제작 공정)이 병행된다면, 철제못신의 용도와 기능, 사회문화적 의미를 한층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에서 확인된 철제못신 관련 자료, 통일신라 이후 철제못신의 역할을 대신한 기물과 문화, 철제못신의 전 세계적 상관관계[93] 등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게 되리라 생각한다.

투고일 2026. 4. 28 | **심사완료일** 2026. 9. 15 | **게재확정일** 2026. 10. 1

만, 현재 자료만으로 양자를 직접적인 기술 계보 관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라에서 양자가 모두 부장품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못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즉, 금동못신은 철제못신과 재질 · 형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작 의도나 성격, 의미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92)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Ⅰ형 철제못신을 고정시키는 가죽 끈(유기질)이 공반 출토된 적이 없다. 향후 관련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는 바이다.

93) 동아시아와 내륙 유라시아 · 북유럽 철제못신의 분포도를 보면 전자는 대부분 냉대동계지대(Dwa · Dwb), 후자는 모두 냉대습윤지대(Dfb · Dfc · Dfd)에서 출토되고 있다. 비록 현재의 기후 분포와 연결해 해석한 것이지만, 철제못신이 지형 및 기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기에는 충분하다. 단, 현재의 쾨펜-가이거 기후 분포는 고대~중세의 실제 기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대응은 시론적 가설에 머문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로마~바이킹시대 사이에 철제못신 실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못신의 사용이 자연지리적인 요소 이외에 사회 · 문화적 요인에도 좌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아시아 사례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고기후 자료와의 정밀한 대조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그림 16).

[그림 16] 현대 쾨펜–가이거 기후 분포와 철제못신 분포도(참고적 비교)

참고문헌

- 문헌사료 -

『急就篇』, 『釋名』, 『康熙字典』, 『漢書』, 『後漢書』, 『晉書』, 『宋書』, 『南齊書』, 『梁書』, 『魏書』, 『南史』, 『北史』, 『資治通鑑』, 『太平御覽』, 『嘉泰會稽志』, 『農書』

강경무, 2009, 「경주 황오동 고분군 출토 탈착식 철제 못신 소고」, 『경북대학교 박물관 年報』 7, 慶北大學校博物館.

_____, 2010, 「三國時代 脫着式 鐵製 못신 硏究」, 『韓國考古學報』 76, 韓國考古學會.

_____, 2024, 「7. 황오동 34 · 37호 출토 탈착식철제못신 소고」, 『慶州 皇吳洞 37號 新羅古墳 發掘調査報告書』, 경북대학교박물관 ·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경북대학교박물관, 2024a, 『慶州 皇吳洞 34號 新羅古墳 發掘調査報告書-본문-』.

_____, 2024b, 『慶州 皇吳洞 34號 新羅古墳 發掘調査報告書-사진-』.

_____, 2024c, 『慶州 皇吳洞 37號 新羅古墳 發掘調査報告書-사진-』.

慶北大學校博物館 · 啓明大學校博物館, 1979,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慶尙大學校博物館, 1990, 『陜川玉田古墳群II-M3號墳』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유적 X Ⅳ-41호 적석목곽묘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공주박물관, 2025, 『한성475: 두 왕의 승부수』 특별전시도록.

국립공주박물관 · 공주시, 2012, 『松山里 古墳群 基礎資料集 解說』.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2019,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마한 사람들, 큰 무덤에 함께 잠들다』 특별전시 도록.

국립대구박물관, 2024, 『한국의 신발, 발과 신』 특별전시 도록.

國立文化財硏究所, 2005, 『풍납토성 V-삼표산업 사옥 신축예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고구려의 철기』.

金性泰, 2004, 「환인 · 집안에서 새로 발굴된 고구려 병기 연구」, 『환인 · 집안지역 고구려유적 발굴성과의 검토』 고구려연구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高句麗硏究會.

_____, 2005, 「최근 보고된 고구려무기의 검토」, 『高句麗硏究』 20, 高句麗硏究會.

_____, 2010, 「제1장 고대의 무기와 무예」,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한국문화사 14권, 국사편찬위원회.

김재열, 2024, 「4~6세기 신라 귀금속 장신구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202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Ⅱ : 압록강 중상류 2 집안-신빈』.

_____, 202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Ⅵ : 통구분지 3 성곽-기타 유적-유물』.

박수동, 2012,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동못신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5, 「경주 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동못신 연구」, 『蔚山史學』 19, 蔚山大學校 史學會.

서울大學校博物館, 2009, 『龍馬山 第2堡壘-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0,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신광철, 2019, 「금이성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대외정책」, 『韓國史學報』 74, 高麗史學會.

_____, 2020, 「4~6세기 중장기병 문화의 유행과 신라 · 가야의 대응 전략」, 『한국 고대의 말갑옷』, 국립김해박물관.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古墳壁畵를 중심으로-」, 『韓國軍事史硏究』 2, 國防軍事硏究所.

嶺南大學校博物館, 1999a,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Ⅳ-造永C Ⅰ · Ⅱ 號墳-(本文)』.

嶺南大學校博物館, 1999b,『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Ⅳ-造永CⅠ · Ⅱ號墳-(圖版)』.
_____, 2000a,『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Ⅴ-造永EⅠ號墳-(本文)』.
_____, 2000b,『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Ⅴ-造永EⅠ號墳-(圖版)』.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유네스코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 財團法人東洋文庫, 2000,『朝鮮古蹟硏究會遺稿I』.
李炳魯, 2002,「高句麗와 倭의 文化交流-日本의 남아있는 遺蹟 · 遺物을 中心으로-」,『高句麗硏究』14, 高句麗硏究會.
이융조 · 우종윤, 1995,「단양 수양개유적 발굴조사 개보」,『한국 고고학의 반세기』제1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이재돈, 2007,「남한강유역 삼한시대 집터의 전개-단양 수양개유적을 중심으로-」,『중앙고고연구』3, 중앙문화재연구원.
전정은, 2023,「백제 금동신발 무늬의 변화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동민, 2017,「고구려 騎乘用 馬具의 출토 양상과 계통」,『역사문화연구』6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정상석, 2012「『楡樹 老河深』보고서 재검토를 통한 묘역구분과 조성연대에 대한 일고찰」,『고고학』11-1, 중부고고학회.
(재)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1a,『春川 槿花洞遺蹟-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3권〉.
_____, 2011b,『春川 槿花洞遺蹟(A區域)-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
(財)中原文化財硏究院, 2008,『淸州 父母山城Ⅰ 1 · 2차발굴조사 종합보고서-북문지 · 수구부 일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公州 水村里 古墳群Ⅵ-공주 수촌리고분군 주변지역 시굴조사』.
최영주, 2020,「일본 긴키지역의 생산유적으로 본 백제계 도래인의 정착양상」,『歷史學硏究』77, 호남사학회.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淸原 主城里遺蹟』.
한국문화재재단, 2020,『81. 경주 탑동 6-1번지 유적』.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龍仁 彦南里一統一新羅 生活遺蹟-』.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編, 1987,『楡樹老河深』,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集安市博物館 編著, 2004,『丸都山城—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查試掘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集安市博物館 · 吉林省博物館 編著, 2010,『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耿鐵華, 1993,「高句麗兵機初論」,『遼海文物學刊』1993-2, 遼海文物學刊編輯部.
東潮, 1997,『高句麗考古學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山本孝文(杨萌 譯), 2016,「日本列岛封土石室墓的展开与连云港石室墓」,『东南文化』2016-4, 南京博物院.
三木市教育委員会, 2000,『高木古墳群 · 高木多重土塁 1』.
徐秉琨 · 孙守道, 1996,『東北文化: 白山黑水中的农牧文明』, 上海: 上海远東出版社.
王鹏勇, 2000,「高句丽之钉履」,『博物馆硏究』2000-1, 吉林省博物馆学会 · 吉林省文物局.
王瑞 · 韩容洙, 2021,「中国上古足类服饰名词词汇与文化硏究」,『철학 · 사상 · 문화』37,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編, 2002,『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遼宁省文物考古硏究所 · 朝阳市博物馆 · 北票市文物管理所, 2004,「遼宁北票喇嘛洞墓地1998年发掘报告」,『考古学报』2004-2.

張雪岩, 1992,「集安高句麗時期採石場」,『博物館研究』1992-1, 吉林省博物館學會 · 吉林省考古學會.
张玉春, 2009,「用显微镜和电镜观测高句丽时期丸都山城宫殿址部分铁器的腐蚀状况」,『文物保护与考古科学』21-2, 上海博物馆.
田立坤, 2003,「關于北票喇嘛洞三燕文化墓地的幾個問題」,『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田小弘 · 吴春艳, 2014,「高句丽民族服饰元素在现代服饰设计中的应用」,『艺术与设计: 学术版』2014-4, 经济日报社.
鄭春穎, 2013,「高句丽的钉鞋」,『东北史地』2013-5, 吉林省社會科学院.
_____, 2015,『高句丽服饰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朱泓 · 曾雯 · 张全超 · 陈山 · 周慧, 2012,「喇嘛洞三燕文化居民族属问题的生物考古学考察」,『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52-1.
陈建立, 2017,「中国中原制铁技术向周边地区的传播」,『동북아시아 제철기술의 흐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陳爽, 2010,「高句麗兵器研究」, 吉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万欣 · 白云燕 · 赵代盈 · 肖俊涛, 2020,「辽宁北票市喇嘛洞墓地ⅠM17铁甲堆积的室内清理」,『東アジア考古学論叢Ⅱ ー遼西地域の東晋十六国期都城文化の研究ー』, 奈良文化財研究所.
小林青樹, 2016,「古墳時代における力士埴輪足背部裝着のスパイク状打擊具」,『スポーツ史學會30周年記念大會發表抄錄集』, スポーツ史學會.
_____, 2017,『倭人の祭祀考古學』, 東京: 新泉社.
_____, 2019,「古墳時代のスパイク状鉄製品と相撲の起源」,『古墳と国家形成期の諸問題』, 山川出版社.
井上主税, 2021,「古墳時代中期前半の河内平野における朝鮮半島系遺物の流入に関する考察」,『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54,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
中久保辰夫, 2019,「百済 · 栄山江流域と倭の相互交流とその歴史的役割」,『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17, 国立歴史民俗博物館.
A.F.Souza · J.R.Kunz · R.Laus · M.A.Moreira · T.R.Muller · J.H.Fonteque, 2016, Biometrics of hoof balance in equids, *Arq. Bras. Med. Vet. Zootec*. 68-4, Universidade Federal de Minas Gerais.
ANNE-SOFIE GRÄSLUND, 2025, Crampons – Late Iron-age everyday items and/or artefacts with sacred meaning?, *AmS-Skrifter 29*, Museum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Stavanger.
ARWIDSSON, Greta (ed.), 1986, *Birka. Vol.II. 2.Systematische Analysen der Gräberfunde*, Stockholm.
Déchelette, Joseph. 1914. *Manuel d'archéologie préhistorique, celtique et gallo-romaine*, vol. II, troisième partie: *Second Âge du Fer ou Époque de La Tène*. Paris: Auguste Picard.
Булат Хамидуллин редкол., 2006, История татар. Том II. Волжская Булгария и Великая Степь, Казань: РухИЛ.
Hans Christian Küchelmann · Petar Zidarov, 2003, Eislaufen auf Schlittknochenin der Vergangenheit und heute, Proceedings of the 4th Meeting of the ICAZ Worked Bone Research Group, International Council for Archaeozoology.
Недашковский, Л.Ф.·Шигапов, М.Б. 2018. Металл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и керамика с Хмелевского I селища», *Нижневолж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17-1*,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автоном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олгогра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J. Monroe Thorington, 1934, A Note on Ancient Crampons, *American Alpine Journal 2-2*, American

Alpine Club.

Jamsranjav Bayarsaikhan, Tsagaan Turbat, Chinbold Bayandelger, Tumurbaatar Tuvshinjargal, Juan Wang, Igor Chechushkov, Manabu Uetsuki, Naoto Isahaya, Mark Hudson, Noriyuki Shiraishi, Yue Li, Chengrui Zhang, Gelegdorj Eregzen, Gino Caspari, Paula López-Calle, Joshua L. Convert, Gaëtan Tressières, Lorelei Chauvey, Julie Birgel, Nasan-Ochir Erdene-Ochir, Jan Bemmann, Gregory Hodgins, Kristine K. Richter, Ludovic Orlando, Christina Warinner and William Timothy Treal Taylor, 2024, The origins of saddles and riding technology in East Asia: discoveries from the Mongolian Altai, *Antiquity 98(3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Jung Wanjin, 2021, A Chinese Scholar's View on the Costume of Goguryeo: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1*, 한국학중앙연구원.

Lars Pilø · Espen Finstad · James H. Barrett, 2020, Crossing the ice: an Iron Age to medieval mountain pass at Lendbreen, Norway, *Antiquity 2020-94*,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hr, A. 1935. *Zu den sogenannten prähistorischen Steigeisen. Suomen Muinaismuistoyhdistyksen Aikakauskirja – Finska Fornminnesföreningens Tidskrift 39(2)*. Helsinki: Suomen Muinaismuistoyhdistys.

Петров, М. И. 2006, Обувные шипы из новгородских раскопок, *Новгород и Новгородская земля.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Вып. 20: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 конференции*,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Plankājs, Eduards., 2022, Cēsu pilī atrastie leduspieši, *In Cēsu pils raksti IV: arheoloģija, arhitektūra, vēsture*, Cēsu Kultūras un Tūrisma centrs.

Sacken, E. von., 1868. *Das Grabfeld von Hallstatt in Oberösterreich und dessen Alterthümer*. Wien: W. Braumüller.

Vasilache, Ş. 2019. Standing Their Ground: European Iron Age Crampons. *Instrumentum: Bulletin du Groupe de travail européen sur l'artisanat et les productions manufacturées de l'Antiquité à l'époque moderne 49*.

VLASATÝ, Tomáš., 2017, Viking Age crampons, *Project Forlǫg: Reenactment and science*[online]. Available at: https://www.sagy.vikingove.cz. DOI: https://doi.org/10.59500/forlog. .ISSN 2788-3000.

http://doi.org/10.20292/jcich.2026.51.31

A New Study of Iron-Spiked Footwear of the Three Kingdoms-Unified Silla Period

Shin, Kwang-Cheol(Associate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Kim, Ha-Na(ABD, Dong-A University)

This study reassesses detachable iron-spiked footwear from East Asia dating from the Three Kingdoms to the Unified Silla period, examining its function, use, and significance through archaeological remains, textual sources, and comparative evidence.

Because such objects are rare and often overlooked or misidentified, this study re-examines 72 specimens—27 from China, 43 from Korea, and 2 from Japan—and proposes a typology based on form, spike length, and attachment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iron-spiked footwear served both utilitarian and funerary purposes. Practical use is more evident in the Goguryeo and Baekje spheres, whereas finds from the Buyeo and Silla spheres occur mainly in funerary contexts. These differences help clarify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iron-spiked footwear in ancient East Asia.

Key words : Detachable Iron-Spiked Footwear Fittings, spikes, Three Kingdoms to Unified Silla period, Grave Goods, gilt-bronze spiked shoes